■ 민족문화연구 제84호(2019.08.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85-129.
http://doi.org/10.17948/kcs.2019..84.85

【특집2: 삼일운동과 지역】

# 도시 지역에서 3.1운동의 전개와 특징*

염복규(廉馥圭)**

목 차

1. 머리말
2. 1919년, 조선에서 '도시'
3. 운동의 기본 유형과 행동 양상
4. 운동의 주체와 매체
5. 운동 발발의 시점과 시간대
6.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국사편찬위원회 삼일운동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도시 지역에서 3.1운동의 전개과정과 특징을 살펴본 연구이다.

먼저 1919년 당시 식민지권력이 행정적 도시로 지정한 12개 府와 23개 指定面, 그리고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고 철도역이 입지한 일부 보통면을 도시로 설정했다.

다음으로 삼일운동데이터베이스의 분류에 따라 3.1운동의 기본 유형, 행동 양상, 주체, 매체, 운동 발발의 시점, 시간대를 살펴보았다.

기본 유형에서 도시의 특징은 학생의 운동인 휴학휴교와 개인적 투쟁이 대부분인 기타활동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학교가 있는 곳이 곧 도시임을 알 수 있다.

행동 양상은 도시, 비도시를 막론하고 만세가 주류였다. 그런데 도시는 비도시에 비

* 이 논문은 2018년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연구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부교수.

해 파손파괴의 비중이 확연히 높았다. 이는 도시가 비도시에 비해 파괴할만한 시설이 밀집한 공간이었음을 보여준다.

운동의 주체는 도시, 비도시를 막론하고 예수교도, 천도교도, 학생, 농민이 절대다수였다. 그런데 예수교도는 도시, 비도시를 막론하고 고른 비중인 반면 도시에서는 학생, 비도시에서는 천도교도, 농민의 비중이 확연히 높았다.

깃발, 문서, 구호는 3.1운동의 3대 매체였다. 그런데 깃발은 도시, 비도시를 막론하고 고른 비중인 반면 도시에서는 문서, 비도시에서는 구호의 비중이 확연히 높았다. 이는 당시 조선에서 문자 네트워크와 음성 네트워크가 서로 구분되는 공간에서 기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운동 발발의 시점을 보면 도시에서는 3월 초순에 급상승, 중순에 하강, 하순에 재상승, 4월 들어 지속적 하강의 곡선을 그린다. 반면 비도시에서는 3월 내내 서서히 상승, 4월 초순 절정, 중순부터 급하강의 곡선을 그린다. 이는 도시에서 시작된 3.1운동이 점차 인근 비도시로 확산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운동 발발의 시간대는 도시와 비도시가 비슷하다. 그러나 도시는 오후의 비중이 조금 높으며, 비도시는 야간의 비중이 조금 높다. 이는 두 지역 간의 생활 리듬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분석은 빅데이터에 기반한 운동의 '양적 분석'이다. 추후 이를 기반으로 '질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주제어: 1919년의 도시, 국사편찬위원회 삼일운동데이터베이스, 도시 지역의 3.1운동, 3.1운동의 양적 분석, 학생, 개인적 투쟁, 문자 네트워크.

## 1. 머리말

3.1운동이 식민지시기 35년을 통틀어 미증유의 대규모 민족운동이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3.1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방대한 선행 연구가 축적되었으며, 2019년 100주년을 맞이하여 현재까지도 거의 실시간으로 새로운 연구가 제출되고 있다. 먼저 3.1운동 연구의 흐름을 중요한 연구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광복 후 3.1운동에 대한 학술 연구의 효시는 1969년 3.1운동 50주년을 기념하여 동아일보사가 펴낸 기념논집을 들 수 있다.[1] 1천여 쪽, 70여 편의

논문을 모은 이 논집에서는 3.1운동의 배경, 이념, 주체에 대한 거시적 분석에 속하는 거의 모든 주제가 다루어졌다. 비록 운동의 실제 전개양상에 대한 분석은 소략하나, 이 논집의 가장 큰 의미는 종교(특히 기독교)-학생-비폭력으로 3.1운동을 설명하는 기본틀을 확립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70주년을 맞아 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가 공편한 연구서가 간행되었다.[2] 1980년대 민중사학에 바탕한 이 연구서는 50주년 기념논집으로 대표되는 3.1운동상에 대비하여 '민중의 진출'을 부각시키고자 노력했다. 다소 도식적으로 말하자면 비종교(혹은 천도교)-민중-폭력의 설명틀을 제시한 점이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서도 운동의 실제 전개양상은 시위가 활발하게 일어난 몇 개 지역(평안도, 경기도, 경상남도 등)의 사례 분석에 그쳐 부조적 수법의 혐의가 없지 않다.[3]

3.1운동의 지역별 전개양상에 대한 세밀한 실체적 검토는 2009년 독립기념관의 총서 편찬에서 이루어졌다. 전 60권의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시리즈 중 국내 3.1운동의 지역별 전개양상을 다룬 두 권은 전국의 3.1운동 양상을 한반도의 각 권역(중부, 북부, 남부), 도, 군별로 거의 '전수' 정리했다.[4] 총서 편찬의 목적이 처음부터 그렇든, 그렇지 않았든 이 연구를 통해 3.1운동의 전개양상을 권역-도-군 등 서로 다른 공간 레벨에서 비교해보는 것이 가능해졌다.

올해는 100주년을 맞이하여 연초부터 다각도의 연구가 제출되었다. 다양한 관점에 의한 단독 저서도 여러 권이며[5], '21세기 3.1운동 연구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할 만한 기념비적인 공동 연구도 이루어졌다.[6] 그 밖에 이루 셀 수 없는 만큼 많은 지역 사례 연구도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1) 東亞日報社 편, 『3.1運動50周年紀念論集』, 東亞日報社, 1969.
2) 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 편, 『3.1민족해방운동연구』, 청년사, 1989.
3) 이윤상・이지원・정연태, 「제2편 3.1운동의 전개양상」, 같은 책.
4) 이정은・김정인,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19—국내 3.1운동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김진호・박이준・박철규,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0—국내 3.1운동Ⅱ』,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5) 대표적인 것으로는 권보드래, 『3월 1일의 밤』, 돌베개, 2019; 김정인, 『오늘과 마주한 3.1운동』, 책과함께, 2019; 박찬승, 『1919: 대한민국의 첫 번째 봄』, 다산초당, 2019; 조한성, 『만세열전』, 생각정원, 2019.
6) 한국역사연구회 편, 『3.1운동 100년』 1-5, 휴머니스트, 2019a-e.

이상의 연구를 통해 적어도 한반도 내에서 각 지역별로 3.1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의 실체는 거의 밝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도시' 지역에서 3.1운동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실 1919년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도시화의 정도는 전반적으로 미약했다. 그러나 병합 초기 이미 도시를 행정적으로 규정하는 법제도 제정되었다. 법적으로 도시로 규정된 지역은 전통적으로 도시화된 지역이건 그렇지 않건 식민통치의 중심지로서 식민지권력에 의해, 그리고 식민자(일본인)에 의해 '개발'되었다. 그리고 관공서, 학교, 상업시설 등 도시의 지표가 되는 시설이 상대적으로 밀집한 지역으로서 비도시와 일정하게 구분되는 공간이었다.

그리하여 도시 지역에서 3.1운동의 특징을 찾아본다면 운동의 일반적 모습과는 다른 무엇이 드러나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런 작업을 통해 획기적인 사실을 발견하기는 불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방대한 선행 연구에서 도시-비도시를 구분하는 관점을 취한 연구가 드물었으며, 이 문제를 언급하더라도 한, 두 지역의 사례를 제시하는 데 그쳤던 만큼[7] 전면적으로 도시-비도시의 구분을 취해봄으로써 그동안 개별 지역 사례 연구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점을 조금이나마 포착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8]

---

7) 선행 연구 중 도시라는 키워드를 의식적으로 분석에 도입한 연구로는 먼저 김정인, 앞의 책, 2019, '1장 공간: 북부, 그리고 도시에서 발화하다'가 있다. 김정인은 경성과 북부의 6개 도시(평양, 진남포, 선천, 의주, 원산, 안주)를 3.1운동의 발상지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3.1운동은 이상 7개 도시에서 발화하여 부근 다른 도시로, 다시 농촌으로 확산되는 경로를 밟았다고 정리했다. 이 연구의 주장은 물론 온당한 것이나, 저자의 '도시' 규정이 자의적이며 또 이상 7개 도시에 속하지 않는 도시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없는 한계가 있다. 박현은 경성의 만세시위를 중심으로 이를 임오군란 이래 '도시 시위의 계보'에서 연속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했다. 박현, 「도시 시위의 계보와 3.1운동」, 한국역사연구회 편, 앞의 책, 2019d, 201-235면.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한반도의 대표적 두 도시인 경성과 평양의 경우를 비교한 연구도 제출되었다. 염복규 외, 『경성과 평양의 3.1운동』, 서울역사박물관, 2019. 이 연구들은 분석에 도시 공간이라는 변수를 적극 도입했다는 의의가 있으나 도시의 규모나 운동의 열기에서 예외적인 경성과 평양만을 사례로 한 점에서 일반적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

8) 이런 각도의 분석은 그동안 지역 사례 연구가 축적되었거니와 최근 국사편찬위원회 삼일운동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samil/; 이하 '삼일디비'로 줄임)가 구축됨으로써 가능해졌다. 이 글도 기본적으로 삼일디비에 기반했다. 또 운동 관련 사료도 삼일디비의 링크에 즉해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소요사건서류, 도장관보고철) 및 전자사료관(판결문)에서 열람했다.

## 2. 1919년, 조선에서 '도시'

도시 지역에서 3.1운동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1919년 당시 조선에서 도시란 어디인가?'를 확정해야 한다. 그런데 1919년은 물론이거니와 범위를 넓혀 식민지시기 도시란 어디인가에 대해서도 명쾌한 해답을 내린 연구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이는 물론 도시의 정의가 각양각색이며 따라서 도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리된 해답이 없는 것과 관련이 있다. 사전적으로 도시는 "일정한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9]이다. 당장 이 정의에서도 '사람이 많이 산다'의 기준을 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한국 도시사 연구의 선구자인 손정목은 일찍이 식민지시기 지방행정제도의 변화를 일별하면서 府와 指定面을 도시로 설정하고 법제를 정리했다.[10] 그러나 이 연구는 조선총독부가 공포한 법제를 말 그대로 정리했을 뿐 식민지권력이 어떤 기준으로 부와 지정면이라는 도시를 '창출'했는지에 대해서는 표면적 분석에 그쳤다. 식민지시기 도시 인구의 변동을 분석한 초기의 대표적 연구도 도시를 특별히 정의하지 않고 부를 도시로 임의 규정하고 논의를 전개했다.[11] 이런 경향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12]

물론 부와 지정면이 1910년대 공포된 「府制」와 「面制」에 의해 지정된 '행정적 도시'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글에서도 이를 전제로 하되, 관련 법제의 성격, 그리고 부와 지정면이 지정되는 과정을 되짚어보고 부와 지정면에 속하지 않는 지역 중 도시의 범주에 추가할 수 있는 지역은 없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를 통해 일차적으로 '도시 지역에서 3.1운동'의 분석 대상의 윤곽을 그리고자 한다.

1913년 10월 조선총독부는 「부제」를 공포하고 그에 따라 12개 부를 지정했다(1914.4.1. 시행).[13] 「부제」는 일본인 전관거류지를 대상으로 1905년

9) 「도시」, 국립국어원 표준대국어사전, https://stdict.korean.go.kr/(2019.06.30 검색).
10) 손정목, 『韓國地方制度・自治史硏究(上)』, 一志社, 1992 참고.
11) 권태환, 「日帝時代의 都市化」, 『韓國의 社會와 文化』 제11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참고.
12) 예컨대 이정섭은 식민지시기 도시 인구 이동을 분석하면서 1930년 현재 부와 지정면을 별다른 설명 없이 도시로 설정하고 있다. 이정섭, 「일제강점기 도시화와 인구이동」, 『대한지리학회지』 제52권 8호, 대한지리학회, 2017 참고.

3월 공포된 「居留民團法」을 계승한 것이었다.[14] 따라서 원칙적으로 병합 이전 일본인 거류민단이 설치되었던 지역이 부가 되었다.[15] 그런데 부의 공간적 범위가 거류민단의 관할 구역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 범위는 1914년 3월 부제 시행에 앞서 공포된 「市街地稅令」에 의해 정해졌다.[16] 「시가지세령」의 요지는 지세를 부과하지 않는 '시가지'에 시가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14년 이후 부의 행정구역은 선행 연구가 두루 지적하듯이 기존 부의 구역 중 시가지 일부로 제한되었으며 외곽 지역은 인근 군으로 편입되었다.

그런데 부제가 시행된 1914년 4월 1일 공포된 '시가지세를 부과할 시가지'에는 부 외에 다수의 면이 포함되어 있었다.[17] 법제에 "조선총독이 이를 지정"(「시가지세령」 제2조)한다고 되어있는 시가지세의 구체적인 부과 기준이 "집단 호수 1천 호 이상 되는 중요 시가지"였기 때문이다.[18] 1천 호 이상이라는 기준이 정확히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1914년 4월 당시 식민지권력이 규정한 '시가지'는 인구의 밀집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범박하게 생각할 때 도시에 가까운 것임을 알 수 있다.[19]

「부제」에 이어 조선총독부는 1917년 6월 「면제」를 공포하여 식민지 지방행정제도의 완성을 일단락했다.[20] 조선총독부는 병합 초기부터 면을 식민통치의 기본 단위로 삼고자 먼저 면적 4方里(약 1㎢), 인구 800호를 기준으로

13) 「1913.10.30., 制令 제7호, 府制」, 『朝鮮總督府官報』, 1913.10.30.
14) 박준형의 표현을 빌리면 「거류민단법」이 「부제」로 대체됨에 따라 한반도의 공간 구조는 "조약체제하 공간 구조"에서 "식민지적 공간 구조"로 재편되었다. 박준형, 「'조계'에서 '부'로」, 『사회와 역사』 제110집, 한국사회사학회, 2016 참고.
15) 통감부 시기인 1908년 개항하여 거류민단이 조직되지 않은 청진만은 예외이다.
16) 「1914.3.16., 制令 제2호, 市街地稅令」, 『朝鮮總督府官報』, 1914.3.16.
17) 「1914.4.1., 朝鮮總督府告示 제100호」, 『朝鮮總督府官報』, 1914.4.1.
18) 「1913.12.18., 度祕 제436호, 市街地稅令ヲ定ム」, 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 박준형, 앞의 글, 2016, 242면.
19) 물론 이 시기 '시가지'라고 불린 지역의 명시적인 기준을 찾아볼 수 없는 만큼 시가지라고 열거된 지역은 매우 불균등하다. 예컨대 전국 행정구획 정비 직전 관보에 게재된 1912년 상반기 기준 '著名市街地現住戶口表'를 보면 총 120개 지역이 등장하는데 이 중에는 합계 호수 1천 호 이하인 지역이 62개나 포함되어 있다. 『朝鮮總督府官報』, 1912.12.17.
20) 「1917.6.9., 制令 제1호, 面制」, 『朝鮮總督府官報』, 1917.6.9.

1914년 기존의 4,300여 개의 면을 2,500여 개로 통폐합했다.[21] 이는 면을 식민통치의 기본 단위로 '균질화'하는 기초 작업이었다.[22] 이와 더불어 면제 입안을 추진했다. 그런데 면제는 최초의 초안 작성에서 제정까지 4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면의 법적 지위를 둘러싸고 면을 법인화하여 공공단체로서 자율성을 부여하려고 한 조선총독부와 이에 반대한 내무성 법제국의 견해 차이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23]

이런 가운데 일찍부터 면을 一級面, 二級面으로 구분하려는 발상이 있었음이 주목된다. 1911년 7월 전국 도장관회의, 부윤회의의 의견을 청취하여 조선총독부 내무부가 작성한 의견서에서는 "부제 시행지 이외에 있어서도 내지인 집단의 상황 및 그 경제능력 등에 있어서 심히 서로 같지 않은 데가 있다. 대전, 공주, 전주, 광주, 진주, 개성, 해주 등은 아직 부제를 시행할 정도는 아니나 인구가 희박하고 資力이 빈약한 다른 면과 동일한 법제 아래에 두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여 "전자에는 일급면제를 공포하고 후자에는 이급면제를 공포"할 것을 제안했다.[24]

위에 열거한 "다른 면과 동일한 법제 아래에 두기는 어려운" 면 중 대전, 광주는 일본인 중심의 신시가지에 가까운 반면 공주, 전주, 진주, 개성, 해주 등은 전통적인 읍치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조선총독부의 초기 면제 구상에는 부제를 보완하여 조선의 전통도시를 행정적으로 (준)도시의 범주로 포괄하려는 발상도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 내무부는 이듬해 6월 이를 구체화한 제령안을 입안하기까지 했으나, 이를 곧 철회하여 같은 해 10월 일급면, 이급면의 구분을 두지 않되 면 중에 총독이 특별히 지정한 지정면을 포함한 초안을 완성하여 본국 내무성에 송부했다.[25]

---

21) 홍순권, 「일제초기의 면 운영과 '조선면제'의 성립」, 『역사와 현실』 제23호, 한국역사연구회, 1997, 158-160면.

22) 윤해동, 「일제시기 면제 실시와 근대적 관료행정제도의 도입」, 『한국사학보』 제24호, 고려사학회, 2006, 281면.

23) 홍순권, 앞의 글, 161-164면.

24) 朝鮮總督府 內務部, 「朝鮮地方制度改正ニ關スル意見」, 1911.7; 姜再鎬, 『植民地朝鮮の地方制度』, 東京大學出版会, 2001, 130면에서 재인용.

25) 姜再鎬, 위의 책, 156-159면. 불과 몇 달 새 일급면, 이급면의 구분을 철회한 이유는 정확히 알

일련의 과정을 거쳐 공포에 이른 「면제」는 조선총독부와 내무성 법제국의 견해를 절충하여 제1조에서 "면은 법령에 의해 면에 속한 사무를 처리하다"라고 하여 법인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되 법인에 준하는 공공단체임을 규정했다. 여기에 제4조에 "조선 총독은 면을 지정하고 면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상담역을 둘 수 있다"고 하여 지정면 제도를 규정했다. 그렇다면 지정면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이에 대한 1917년 당시 문헌의 설명은 찾을 수 없다. 다만 후일의 설명에 따르면 지정면은 "市況이 殷賑하고 內鮮人이 다수 집단하여 그 상황이 부에 近邇한 면에 한해 총독의 지정에 의한 곳"이었다.[26] 1911년의 "내지인 집단의 상황 및 그 경제능력 등에 있어서 심히 서로 같지 않은" 면과 비슷한 설명이다. 여기에 명시적 설명은 전혀 없지만 당시 대부분 부가 아니었던 각 도의 도청 소재지도 모두 지정면으로 지정되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다소 막연하지만 지정면은 다른 면과 구분하여 "부에 近邇"한, 다시 말해서 행정적 도시로 식민지권력이 판단한 면인 셈이다.

「면제」 공포 석 달 뒤인 1917년 9월 조선총독부는 "면제 제4조에 의해 상담역을 두는 면" 23개를 공포했다.[27] 이상에서 잠정적이지만 1919년 당시의 '도시'는 12개 부와 23개 지정면이라고 설정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

경 기 도 - 경성부, 인천부, 수원면(수원군), 송도면(개성군), 영등포면(시흥군)
충청북도 - 청주면(청주군)
충청남도 - 공주면(공주군), 대전면(대전군), 강경면(논산군), 조치원면(연기군)
전라북도 - 군산부, 전주면(전주군), 익산면(익산군)
전라남도 - 목포부, 광주면(광주군)
경상북도 - 대구부, 김천면(김천군), 포항면(영일군)
경상남도 - 부산부, 마산부, 진주면(진주군), 진해면(창원군), 통영면(통영군)

---

수 없다. 홍순권은 조선인의 여론을 감안하여 철회한 것으로 추정했다. 홍순권, 앞의 글, 167면. 그럴 수도 있으나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일급면의 사례에는 다수 조선의 전통도시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조선인의 여론이 여기에 부정적이었을까는 다소 의문이다. 오히려 본국에서는 면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도 반대하는 마당에 면을 공식적으로 구분하여 그 일부에 부에 준하는 권한을 주는 안을 그대로 관철하기에는 부담스러웠으리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26) 朝鮮總督府, 『施政二十五年史』, 朝鮮總督府, 1935, 241면.

27) 「1917.9.19., 府令 제67호」, 『朝鮮總督府官報』, 1917.9.19.

황 해 도 - 해주면(해주군)
평안남도 - 평양부, 진남포부
평안북도 - 신의주부, 의주면(의주군)
강 원 도 - 춘천면(춘천군)
함경남도 - 원산부, 함흥면(함흥군)
함경북도 - 청진부, 회령면(회령군), 나남면(경성군), 성진면(성진군)

* 괄호 안은 각 면이 속한 군

그런데 이 글에서는 이상 35개 지역 외에 보통면 일부를 선별하여 분석 대상에 추가하고자 한다. 12개 부, 23개 지정면만을 '도시'로 설정하는 것은 분석 대상이 너무 적기도 하고 전적으로 '행정적 기준'에만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완책을 찾으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통면 가운데 어디까지를 '도시'로 설정할 것인가? 이를 위한 완전히 만족스러운 방법은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소 임의적인 방법을 쓰겠다. 식민지시기 대표적 통계 문헌인『朝鮮總督府統計年報』의 戶口 조에는 '主要市街地戶口'라는 항목이 있다.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보통면(전체 혹은 일부 동리)이 포함되어 있다. 선별 기준은 알 수 없으나 이 면들은 매 시기 식민지권력이 일반 농촌과 달리 시가지로 상정한 지역으로 전제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식민지시기 도시화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철도역의 입지를 생각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식민지시기 철도의 부설과 철도역의 입지는 인구의 증가, 상업의 발달 등에 영향을 미쳐 해당 지역의 도시화를 촉진하는 기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상의 점을 고려하여『朝鮮總督府統計年報』1919판의 주요 시가지 항목에 포함된 면과 1918년 간행된『朝鮮鐵道旅行案內』[28]의 철도역이 입지한 면을 비교하여 양자가 겹치는 보통면을 도시로 전제하고 부, 지정면에 추가하고자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보통면은 다음과 같다.

경 기 도 - 성호면(수원군/경부선 오산역), 병남면(진위군/경부선 평택역), 한지면(고양군/경원선 서빙고역)

28) 南滿洲鐵道株式會社 京城管理局 편,『朝鮮鐵道旅行案內』,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18.

충청북도 – 부용면(청주군/경부선 부강역), 황금면(영동군/경부선 추풍령역), 황간면(영동군/경부선 황간역), 영동면(영동군/경부선 영동역), 옥천면(옥천군/경부선 옥천역)
충청남도 – 논산면(논산군/호남선 논산역)
전라북도 – 김제면(김제군/군산선 김제역), 용북면(정읍군/군산선 태인역), 정읍면(정읍군/군산선 정읍역)
전라남도 – 송정면(광주군/군산선 송정리역), 나주면(나주군/군산선 나주역), 나신면(나주군/군산선 영산포역)
경상북도 – 왜관면(칠곡군/경부선 왜관역), 약목면(칠곡군/경부선 약목역)
경상남도 – 창원면(창원군/마산선 창원역), 구포면(동래군/경부선 구포역), 밀양면(밀양군/경부선 밀양역), 하동면(밀양군/경부선 삼랑진역, 마산선 낙동강역)
황 해 도 – 금천면(금천군/경의선 금교역), 사원면(봉산군/경의선 사리원역), 화회면(서흥군/경의선 신막역), 서흥면(서흥군/경의선 서흥역), 금암면(평산군/경의선 한포역), 보산면(평산군/경의선 남천역), 황주면(황주군/경의선 황주역), 흑교면(황주군/경의선 흑교역), 겸이포면(황주군/겸이포선 겸이포역)
평안남도 – 신안주면(안주군/경의선 신안주역), 중화면(중화군/경의선 중화역), 순안면(평원군/경의선 순안역)
평안북도 – 선천면(선천군/경의선 선천역), 정주면(정주군/경의선 정주역), 곽산면(정주군/경의선 곽산역), 참면(철산군/경의선 차련관역)
강 원 도 – 철원면(철원군/경원선 철원역), 평강면(평강군/경원선 평강역)
함경남도 – 하발면(고원군/함경선 고원역), 홍인면(영흥군/함경선 영흥역)
함경북도 – 용성면(경성군/함경선 수성역)

* 괄호 안은 각 면이 속한 군/면 내에 소재한 철도역의 명칭

그러면 이상의 지역에서 3.1운동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기에 앞서 각 지역의 민족별 인구 비율을 살펴보자. 민족별 인구 비율은 식민지시기 특정 지역의 성격을 알려주는 기본적인 지표이기도 하거니와 서로 위상도 많이 다를 뿐 아니라 다른 지표도 찾기 어려운 1910년대 해당 지역의 속성을 짚어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표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제할 것은 『조선총독부통계연보』의 주요 시가지 호구 표시 방식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이다. 부와 지정면은 전체 구역의 호구이지만,

보통면은 전체 구역의 호구인 경우도 있고 면 내에서 시가지로 설정한 특정 동리의 호구만 표시한 경우도 많다.[29] 즉 보통면은 전체가 아닌 그 일부를 주요 시가지로 설정한 경우가 많은 셈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글에서 도시로 설정한 보통면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도시화된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면'임을 감안해야 한다. 이상을 염두에 두고 1919년 당시 도시의 민족별 인구 비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각 부, 면별 상세 내역은 〈부표 1〉 참고.)

〈표 1〉 1919년 조선 '도시'의 민족별 인구 비율[30]

| | 일본인 | 조선인 | 합계 |
|---|---|---|---|
| 부 | 173,682 | 401,887 | 583,612 |
| | 29.8% | 68.9% | |
| 부+지정면 | 222,289 | 579,905 | 811,898 |
| | 27.4% | 71.4% | |
| 부+지정면+보통면 일부 | 240,427 | 699,326 | 950,840 |
| | 25.3% | 73.5% | |
| 조선 전체 | 346,619 | 16,783,510 | 17,149,909 |
| | 2.0% | 97.9% | |

먼저 '부+지정면+보통면 일부'보다는 '부+지정면'이, '부+지정면'보다는 '부'의 일본인 비율이 조금씩이나마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실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부, 지정면에 보통면 일부를 더해도 조선 전체에 비하면 일본인 비율이 확연하게 높다. 조선 전체의 일본인 인구 비율이 2.0%임에 비하면 〈부표 1〉의 77개 지역 중 그 이하인 지역은 한지면 상하왕십리 단 1개 지역뿐이다. 또 일본인 인구 비율이 2.1-5%인 지역도 송도면, 약목면, 창원면, 평강면, 서흥면, 중화면, 순안면, 곽산면, 참면 차련관, 하발면 고원 등 10개 지역에 불과하다. 반대로 일본인 인구 비율이 10%를 상회하는 지역은 56개이며, 그중 20%를 상회하는 지역도 35개, 30%를 상회하는 지역도 17개에 이른다. 군사 기지인 진해면과 나남면을 제외하고도 청주면(41.0%), 대전면(71.6%), 군산부(50.1%),

29) 예컨대 경기도의 경우 한지면, 성호면, 병남면은 각각 상하왕십리, 오산리, 평택리의 호구만을 기록하고 있다. 다른 도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부표 1〉에서 부와 지정면은 행정구역 전체의 인구, 보통면은 행정구역 전체 혹은 일부의 인구이다.

30) 『朝鮮總督府通計年報』, 1919. 따라서 기준 시점은 1919년 12월.

익산면(47.6%), 나신면 영산포(44.8%), 부산부(41.1%), 겸이포면(40.8%), 청진부(42.4%) 등 8개 지역의 일본인 인구 비율은 40% 이상이다.

이와 같이 도시는 먼저 일본인이 다수 거주하는 곳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19년 당시 조선 전체 일본인의 69.4%가 부+지정면+보통면(중 도시화된) 일부에 거주하고 있었던 반면(240,427/346,619), 반대로 같은 지역에 조선인은 전체의 4.2%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다(699,326/16,783,510).

다음으로 이상에서 '도시'로 설정한 부, 지정면, 보통면 일부에서 3.1운동의 전개 과정을 삼일디비의 지표를 준거로 살펴보겠다. 이 작업은 물론 한계가 분명하다. 먼저 삼일디비의 구축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답습할 수밖에 없으며 또 기계적인 건수 검토로서 운동의 질적인 면을 고려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전반적인 추세와 윤곽을 그려보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다. 한편 분석 대상 시기는 1919년 3월 1일에서 4월 30일까지로 한정한다. 이것도 임의적이지만 3.1운동이 대략 4월 말이 되면 거의 잦아든다는 점은 선행 연구가 두루 인정하는 바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 3. 운동의 기본 유형과 행동 양상

먼저 살펴볼 것은 운동의 기본 유형과 행동 양상이다. 두 가지 범주는 모두 구체적으로 운동 참여자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는 문제이다. 삼일디비는 운동의 기본 유형을 6개 범주로 나누었다.

〈표 2〉 도시 지역 3.1운동의 기본 유형[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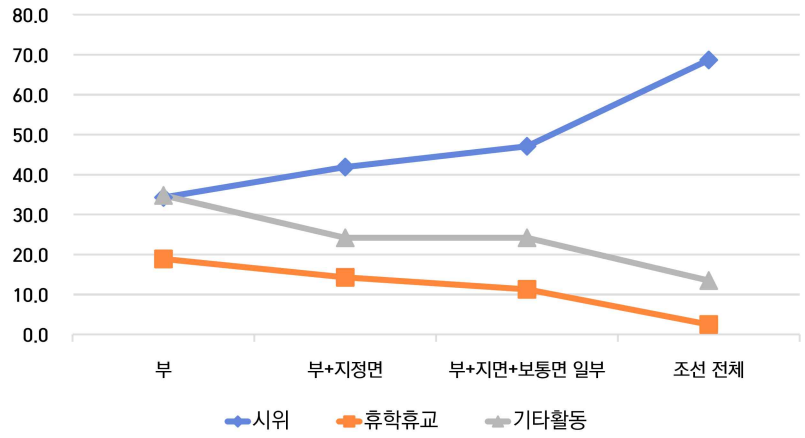
| | 시위 | 철시 | 파업 | 휴학휴교 | 계획 | 기타활동 |
|---|---|---|---|---|---|---|
| 부 | 69 | 9 | 1 | 38 | 14 | 70 |
| | 34.3% | 4.5% | 0.5% | 18.9% | 7.0% | 34.8% |
| 부+지정면 | 138 | 17 | 1 | 47 | 34 | 92 |
| | 41.9% | 5.2% | 0.3% | 14.3% | 10.3% | 28.0% |
| 부+지정면+보통면 일부 | 200 | 20 | 2 | 48 | 52 | 103 |

31) 국사편찬위원회 삼일운동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samil/)를 필자가 재정리함. (〈표 3〉이하도 모두 같음) / 비고: ① 분석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모두 삼일디비의 용어를 따랐다. (〈표 3〉 이하도 모두 같음) ② 각 부, 면별 상세 내역은 〈부표〉 참고(〈표 3〉 이하도 모두 같음).

| | | | | | | |
|---|---|---|---|---|---|---|
| | 47.1% | 4.7% | 0.5% | 11.3% | 12.2% | 24.2% |
| 조선 전체 | 1692 | 25 | 3 | 61 | 350 | 333 |
| | 68.7% | 1.0% | 0.1% | 2.5% | 14.2% | 13.5% |

운동의 기본 유형에서 시위는 지역을 막론하고 운동의 주류적 유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시와 비도시에서 양적 차이는 확연하다. 조선 전체에서 시위는 기본 유형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도시 지역에서는 50% 미만이며 도시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그 비율은 떨어진다.

도시 지역에서 시위를 대신하는 운동의 기본 유형은 휴학휴교와 기타활동이다. 휴학휴교는 그 경향성이 뚜렷하다. 특별한 계층인 학생만이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12개 부의 경우 휴학휴교는 운동의 기본 유형의 20% 가까이 차지하는 반면 조선 전체의 비율은 2.5%에 불과하다. '도시는 곧 학교가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3.1운동의 기본 유형 중 시위, 휴학휴교, 기타활동.

휴학휴교만큼의 차이는 아니지만 기타활동도 도시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현저히 그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기타활동은 당연히 내용이 다양하겠지만 삼일디비에서는 대체로 불온문서의 배포・소지, 단발적 투석, 사적 친분에 의한 권유 등 집합적 행동으로 확대되지 않은 '개인적 행동'을 기타활동으로 분

류했다. 예컨대 3월 8일 김인묵과 최돈영은 익선동 가정집에서 친구 최승규, 최용집에게 독립의 당위성을 설파하다가 발각되었다.[32] 4월 28일에는 경성부 용산 철로에 누군가가 큰 돌 2개를 쌓아놓았다.[33] 4월 24일, 25일 춘천면에서는 개인적으로 습득한 '국민대회 취의서 및 선포문'을 주고받다가 발각되기도 했다.[34]

기타활동에서 비중의 차이가 말해주는 바는 무엇일까? 이는 도시가 비도시보다 개인적 행동에서 집합적 행동으로 진화가 불리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도시가 보다 다양한 방식의 저항이 가능한 공간임을 보여주기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부분은 '거족적 민족 운동으로서 3.1운동'의 시야에 적절하게 포착되지 못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3.1운동은 물론이거니와 예컨대 6.10만세운동과 같은 다른 경우에서도 도시에서 운동의 전체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개인적 행동의 적절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다음으로 계획도 도시화된 지역일수록 그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삼일디비에서 계획으로 잡은 것은 말 그대로 계획 단계에서 발각되어 실제 어떤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발각된 이유는 물론 비밀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포항면에서는 3월 9일 대구부 시위에 참여하고 돌아온 송문수 등에 의해 운동이 계획되었으나 발각되어 실행하지 못했다.[35] 이렇게 본다면 미약하나마 도시는 비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밀 유지 등의 가능성이 높았으며, 따라서 계획한 운동이 실제의 행동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공간이었다는 잠정적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건수가 너무 적어 별도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파업을 논외로 하면 철시는

---

32) 「김인묵 등 2명 판결문」(大正8年刑第917號), 삼일디비, http://db.history.go.kr/samil/SAMIL?ID=DOCUMENT:sen_1725(2019.06.30 검색).

33) 「騷密 第1219號, 獨立運動ニ關スル件(鮮內日報 제62보), 1919.4.29.」, 『大正8年乃至同10年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共7冊 其7』. 이하 '『소요사건서류 7-7』'과 같은 형식으로 줄임.

34) 「이병천 등 3명 판결문」(大正8年刑第1782號), 삼일디비, http://db.history.go.kr/samil/SAMIL?ID=DOCUMENT:sen_0860(2019.06.30 검색).

35) 「송문수 등 4명 판결문」(大正8年刑第94號), 삼일디비, http://db.history.go.kr/samil/SAMIL?ID=DOCUMENT:sen_0225(2019.06.30 검색).

전체적인 비율은 높지 않으나 주목할 만하다. 역시 도시와 비도시의 대비가 역연하기 때문이다. '상점・시장이 있는 곳이 곧 도시'라는 점을 웅변해준다. 그런데 철시의 경우 각각의 사례를 좀 더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철시는 대략 철시・폐점을 권고하거나 위협하는 행동, 타인의 권고나 위협에 의한 철시・폐점, 자발적 철시・폐점 등의 경우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이는 '철시'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식민지권력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소극적) 투쟁에 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정한 자산가인 조선인 상인층의 '불안감'을 반영한 행동인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 '운동'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예컨대 3월 26일 송도면에서 최두순 등이 "폐점은 민심 동요의 기본이므로 개성 상인은 본 서신의 도착과 동시에 폐점하라"는 경고장을 배부하자 조선인 상인은 곧 이튿날부터 폐점을 단행하여 거듭되는 경찰의 압박에 4월 4일부터 다시 개점했다.[36] 그런가 하면 강경면에서는 상인 문상의가 스스로 폐점을 선동하는 문서를 작성・배포하자 친구인 포목상 성석린도 이에 동조했다. 그 결과 3월 말-4월 초 강경 시내 조선인 상점 300여 곳이 모두 폐점했다.[37] 이런 경우는 운동의 범주에 포함해도 무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경우도 있다. 영등포면에서는 3월 말 조선인 상점이 폐점했다가 군수와 경찰서장의 압박으로 이튿날 바로 개점했다.[38] 혹은 청진부에서는 3월 말 시내에서 시위가 벌어지자 중심지의 조선인 상점이 모두 폐점했다.[39] 다른 사료가 없어 분명히 알기는 어려우나 이 두 경우는 운동이라기보다 불안한 상인의 도피에 가까운 행동으로 짐작된다.

〈표 3〉 도시 지역 3.1운동의 행동 양상

| | 만세 | 집단항의 | 파손파괴 | 폭행 | 처단 | 방화 |
|---|---|---|---|---|---|---|
| 부 | 76 | 1 | 13 | 5 | 0 | 1 |

36)「祕第313號, 騷擾ニ關スル件報告, 1919.4.9.」,『大正八年 騷擾事件ニ關スル道長官報告綴 七冊ノ內四』. 이하 '『도장관보고철 7-4』'와 같은 형식으로 줄임.
37)「忠南祕第253號, 地方騷擾ニ關スル件, 1919.4.2.」,『도장관보고철 7-4』.
38)「祕第293號, 騷擾ニ關スル件報告, 1919.4.7.」,『도장관보고철 7-4』.
39)「高第9808號, 獨立運動ニ關スル件(第三十五報), 1919.4.2.」,『소요사건서류 7-7』.

| | | | | | | |
|---|---|---|---|---|---|---|
| | 79.2% | 1.0% | 13.5% | 5.2% | 0.0% | 1.0% |
| 부+지정면 | 157 | 13 | 15 | 15 | 0 | 3 |
| | 77.3% | 6.4% | 7.4% | 7.4% | 0.0% | 1.5% |
| 부+지정면+보통면 일부 | 227 | 19 | 20 | 21 | 0 | 6 |
| | 77.5% | 6.5% | 6.8% | 7.2% | 0.0% | 2.0% |
| 조선 전체 | 1,841 | 250 | 157 | 182 | 5 | 40 |
| | 74.4% | 10.1% | 6.3% | 7.4% | 0.2% | 1.6% |

다음으로 행동 양상을 살펴보자. 삼일디비는 행동 양상도 역시 6개 범주로 나누었다. 이 중 만세는 비폭력 시위, 집단항의는 주재소, 면사무소 등 관공서에 집단으로 쇄도하거나 항의하는 행위, 파손파괴는 건물을 파괴하거나 문서를 소각하는 등의 행위, 폭행은 일본 측에 부상자가 발생한 명백한 상해 행위, 처단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방화는 건조물 등에 불을 지르는 행위이다.

먼저 약간의 비율 차이는 있으나 만세가 도시와 비도시를 막론하고 주류적 행동 양상임이 분명하다. 앞의 기본 유형과 연관지어 보면 3.1운동이 '만세', '시위'로 오랫동안 표상되어온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도시에서도 77개 지역 중 만세가 없었던 지역은 12개인데 그중 용북면을 제외하면 11개 지역은 아예 어떤 운동도 없었던 지역이다.[40] 또 만세만이 유일한 행동 양상인 지역도 절반에 가까운 35개이다.[41]

폭행의 경우도 도시와 비도시를 막론하고 비슷한 비중을 보인다. 도시의 경우 전반적으로 운동이 활발하고 조선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경성부 4건, 송도면 4건, 의주면 3건)에서 많이 발생했으며, 대부분 만세와 동시에 발생했다(위 세 지역 11건 중 9건). 시위 군중이 수적으로 군경 등 진압 측을 압도함을 전제로 [만세 시위 발생 → 진압 시도 → 시위대의 폭행]으로 이어지는

40) 용북면에서는 4월 14일 신태인역 철교 교각의 화재가 있었는데 경찰은 이를 조선인에 의한 방화로 추정했다. 「朝特報 第10號, 騷擾事件에 관한 狀況(1919.4.6.-1919.4.15.), 1919.4.16.」, 『소요사건서류 7-7』.

41) 최근 윤해동은 이 글과 비슷한 방식으로 삼일디비를 검토하여 3.1운동은 비폭력 평화 시위 중심이었다는 오랜 통설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윤해동, 「3.1운동의 폭력과 비폭력」, 『사학연구』 제133호, 한국사학회, 2019 참고. 일견 일리 있는 주장이지만 순수하게 양적으로 볼 때, 3.1운동의 중심이 만세 시위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 밖에 이 연구에서는 3.1운동의 행동 양상을 시기별·도별로 검토하여 전반적인 폭력성은 시기적으로는 4월 초, 지역적으로는 경기도가 가장 높았음을 밝혔다.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42]

행동 양상에서 도시와 비도시 간의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집단항의와 파손파괴이다.[43] 파손파괴와 집단항의는 부, 부+지정면, 부+지정면+보통면 일부, 조선 전체의 비율이 정확하게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파손파괴의 상당 부분은 투석 행위이다. 예컨대 경성부의 8건 중 7건이 전차에 대한 투석이었으며, 부산부에서도 4월 27일 부산진역의 기차에 대한 투석이 있었다.[44] 황주면에서도 마찬가지로 3월 2일 천도교도 200여 명이 황주경찰서로 쇄도, 투석하여 유리창을 모두 파괴했다.[45] 조심스러운 추정이나 파손파괴의 경우 종교 세력이나 학생 등 목적의식적 주체가 더 뚜렷하고 예컨대 전차와 같이 '파괴할 만한 대상'이 더 많은 도시에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런 반면 집단항의는 그 대상이 면사무소, 주재소인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도시화된 지역일수록 집단항의의 '대상'인 관공서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더불어 관공서를 수비하는 일제의 '물리력'이 상대적으로 더 강력했다는 의미도 될 것이다. 부에서 유일한 집단항의의 사례인 군산부의 경우를 보면 지역 3.1운동의 주요 주체인 영명학교 학생이 주도하기는 했으나 운동이 시작된 장소는 부내가 아니라 옥구군 개정면 일대였다. 여기에서 부내로 이동하여 군산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벌인 사건이었다.[46] 보통면의 사례 하나를 보면 구포면에서는 시위 주동자 11명이 검거되자 1,200여 명의 군중이 구포주재소로 쇄도하여 석방을 요구한 사건이었다.[4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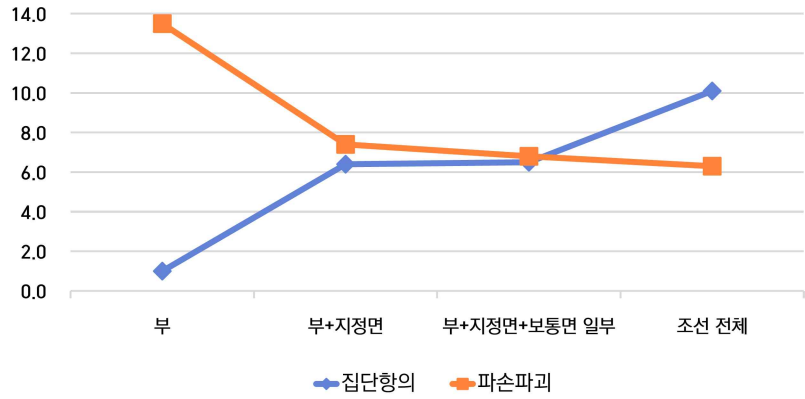
42) 예컨대 3월 6일 송도면에서는 1천여 명의 군중이 경찰서도 쇄도하여 철도수호대와 충돌했으며, 4월 1일 의주면 시장통에서는 1,500여 명의 군중이 집결, 의주성 진입을 시도했는데 헌병, 경찰, 소방조 등이 막으려고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高第6050號, 獨立運動ニ關スル件(제8보), 1919.3.7.」, 『소요사건서류 7-7』; 「平北地第356號, 騷擾ニ關スル件, 1919.4.2.」, 『도장관보고철 7-4』.

43) 그 밖에 처단과 방화는 개별 사건으로서 충격의 강도는 크겠으나 양적으로 큰 의미를 찾기는 어려우므로 더 이상의 분석은 생략한다. 도시에서 처단은 한 건도 없었으며 방화는 군산부 한 곳에서 발생했다.

44) 「騷密 第1068號, 獨立運動ニ關スル件, 1919.4.28.」, 『소요사건서류 7-7』.

45) 「高 第5439號, 獨立運動ニ關スル件(제3보), 1919.3.2.」, 『소요사건서류 7-7』.

46) 「이두열 등 37명 판결문」(大正8年刑控第265號), 삼일디비, http://db.history.go.kr/samil/SAMIL?ID=DOCUMENT:sen_0234(2019.06.30 검색).




〈그림 2〉 3.1운동의 행동 양상 중 집단항의와 파손파괴 비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집단항의보다 파손파괴의 폭력성이 좀 더 높다는 점이다.[48] 그렇다면 도시에서 운동의 폭력성이 비도시보다 높았다는 추정도 가능한 것인가? 그렇게까지 단정하기는 곤란할 듯하다. 전반적으로 집단항의와 파손파괴는 연계된 경우가 많았다. 집단항의가 제압을 당하면 거기에 그치는 것이며, 시위대가 수적 우위를 점할 때 파손파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의미이다. 그에 비해 도시의 경우 앞에서 언급했듯이 전차 투석과 같은 단독의 파손파괴가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런 결과를 통해 도시에서 운동의 폭력성이 비도시보다 낮은 것은 아니었다는 정도의 결론은 가능하리라고 여겨진다.

## 4. 운동의 주체와 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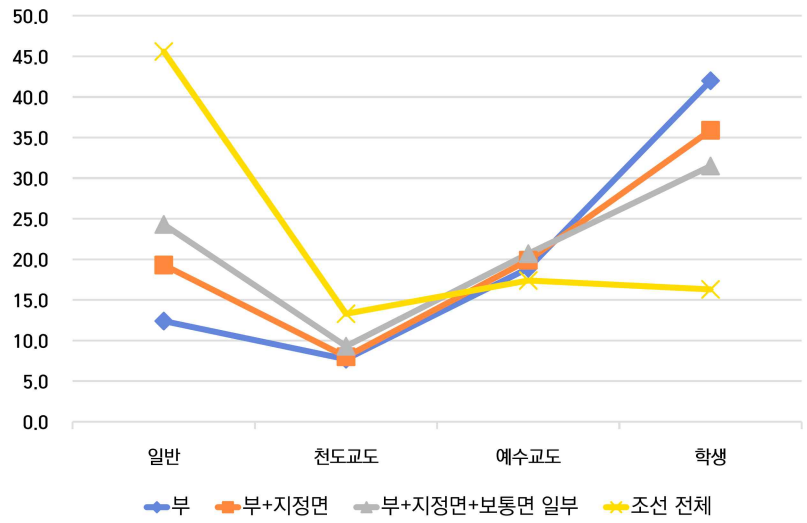
다음으로 운동의 주체와 매체를 살펴보자. 이 두 범주는 상호 연관성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주체에 따라 '익숙한' 매체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47) 「高 第9476號, 獨立運動ニ關スル件(제31보), 1919.3.30.」, 『소요사건서류 7-7』.
48) 윤해동은 만세를 제외한 5가지 행동 양상 중 신체적 물리력을 주로 사용하는 집단항의와 폭행을 '가벼운 폭력', 도구를 사용한 경우가 많은 파손파괴, 처단, 방화를 '무거운 폭력'으로 구분했다. 윤해동, 앞의 글, 2019, 511면.

〈표 4〉 도시 지역 3.1운동의 주체

| | 일반 | 천도교도 | 예수교도 | 대종교도 | 불교도 | 유생 | 상인 | 노동자 | 학생 | 교사 | 관공리 |
|---|---|---|---|---|---|---|---|---|---|---|---|
| 부 | 21 | 13 | 32 | 1 | 4 | 2 | 11 | 10 | 71 | 2 | 2 |
| | 12.4% | 7.7% | 18.9% | 0.6% | 2.4% | 1.2% | 6.5% | 5.9% | 42.0% | 1.2% | 1.2% |
| 부+지정면 | 58 | 24 | 60 | 1 | 4 | 3 | 22 | 15 | 108 | 2 | 4 |
| | 19.3% | 8.0% | 19.9% | 0.3% | 1.3% | 1.0% | 7.3% | 5.0% | 35.9% | 0.7% | 1.3% |
| 부+지정면+보통면 일부 | 94 | 36 | 80 | 1 | 4 | 3 | 24 | 15 | 122 | 3 | 5 |
| | 24.3% | 9.3% | 20.7% | 0.3% | 1.0% | 0.8% | 6.2% | 3.9% | 31.5% | 0.8% | 1.3% |
| 조선 전체 | 1,008 | 294 | 385 | 3 | 12 | 25 | 31 | 31 | 360 | 22 | 40 |
| | 45.6% | 13.3% | 17.4% | 0.1% | 0.5% | 1.1% | 1.4% | 1.4% | 16.3% | 1.0% | 1.8% |

운동의 주체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짐작할 수 있듯이 일반, 천도교도, 예수교도, 학생이다. 도시와 비도시를 막론하고 네 범주를 더하면 전체의 8, 90%에 이른다. 그런데 그 비율이 높은 순서는 조선 전체에서 부에 이르는 순서와 일치한다(각각 92.6%, 85.8%, 83.1%, 81.0%).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비도시보다 도시 지역의 운동 주체가 '다양'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3.1운동의 주체 중 일반, 천도교도, 예수교도, 학생 비교.

그리고 네 주체 중 예수교도는 도시와 비도시를 막론하고 비슷한 비율을 보이는 반면 다른 세 주체는 분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일반과 천도교도의 경우 도시에서 비도시로 갈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학생은 정반대이다. 그 중에서도 일반과 학생의 경우는 극적인 대조를 보인다. 삼일디비에서 일반으로 분류한 주체의 대부분은 농민이다. 여기에서도 3.1운동의 주체는 도시의 경우 학생, 비도시의 경우 농민-천도교도, 도시와 비도시를 막론하고 예수교도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은 상인과 노동자이다. 상인과 노동자 모두 도시에서는 5% 내외를 차지하는 반면 조선 전체에서는 1%대에 불과하다. 이는 물론 철시와 파업 같은 운동 유형이 도시에서만 발생한 것과 연결된다. 다만 철시의 경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운동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만큼 운동 주체로서 상인에 대해서도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표 5〉 도시 지역 3.1운동의 매체

| | 깃발 | 문서 | 노래 | 구호 | 불 | 낙서 | 기타 |
|---|---|---|---|---|---|---|---|
| 부 | 33 | 68 | 5 | 37 | 2 | 2 | 6 |
| | 21.6% | 44.4% | 3.3% | 24.2% | 1.3% | 1.3% | 3.9% |
| 부+지정면 | 61 | 107 | 9 | 81 | 5 | 2 | 9 |
| | 22.3% | 39.1% | 3.3% | 29.6% | 1.8% | 0.7% | 3.3% |
| 부+지정면+보통면 일부 | 86 | 124 | 10 | 121 | 9 | 2 | 10 |
| | 23.8% | 34.3% | 2.8% | 33.4% | 2.5% | 0.6% | 2.8% |
| 조선 전체 | 497 | 444 | 24 | 1015 | 141 | 4 | 27 |
| | 23.1% | 20.6% | 1.1% | 47.2% | 6.6% | 0.2% | 1.3% |

이번에는 주체가 '무엇을 들고 싸웠는지', 운동의 매체를 살펴보자. 먼저 핵심적인 매체는 깃발, 문서, 구호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시와 비도시를 막론하고 세 매체를 더하면 약 90% 정도를 차지한다. 먼저 깃발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 도시화된 지역에서 조선 전체에 이르기까지 거의 비율을 보인다. 물론 같은 깃발이라도 구분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경성부에서 3월 5일 한위건 등 학생 대표가 전날 밤 "제2회 독립운동을 개최하니 태극기를 가지고

오라"는 통고문을 전파하여 등장한 태극기[49]와 22일 노동자대회에서 즉흥적으로 등장한 "한국독립만세" 깃발[50] 같은 것을 정확하게 '같은 매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차이는 미시적 분석을 조선 전체로 확대하면 더욱 크게 드러날 것이다.[51]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는 깃발이라는 매체의 사용에서 도시와 비도시 사이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는 점도 분명하다.

깃발과 달리 도시와 비도시가 확연하게 대비되는 매체는 문서와 구호이다. 도시화된 지역일수록 문서, 그렇지 않은 지역일수록 구호의 비율이 뚜렷하게 높다. 4월 말 평양부에서 기독교인 8명이 국민대회 취지서, 선포문, 임시정부 선포문, 임시정부령 등을 모아서 250매를 등사하여 배포한 사건은 문서 매체의 '도시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문서를 구득하고 그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주체가 있고, 그것을 등사할 시설이 갖추어진 곳, 그런 곳이 바로 도시였던 것이다.[52]

그에 반해 구호는 문서 다음 단계의 행동, 사전 준비 없는 운동, 예상을 넘어서는 운동의 확산 등의 성격을 갖는다. 이 점은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의주면은 3월 1일 당일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유여대 목사가 직접 주도하여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선언서를 배포하는 등 치밀한 문서 중심의 운동이 시작된 곳이다. 그러나 운동 지도자가 체포된 후 4일, 27일 다른 매체 없이 구호를 위주로 한 '자연발생적' 시위가 이어짐을 볼 수 있다.[53] 문서와 구호는 운동 확산의 추동력이라는 차원에서 각각 '문자 네트워

49) 「日記帳譯文(證第1號), 三一獨立宣言 關聯者 訊問調書(一般 示威者調書)(日文)」,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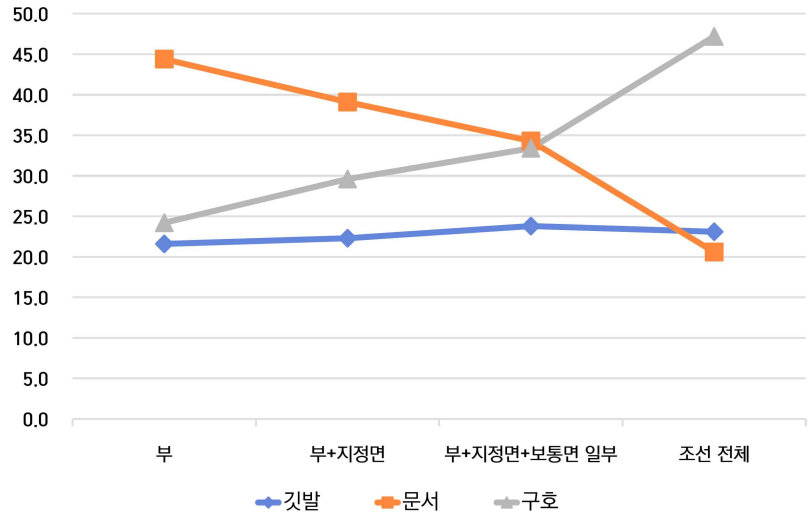
50) 「朝參密 第328號, 騷擾事件ニ關スル續報(제46호), 1919.3.22.」, 『소요사건서류 7-7』.

51) 이기훈은 최근 연구에서 주로 지방에서 표준화된 태극기 외에 즉흥적으로 등장하는 다양한 깃발의 사례를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3.1운동의 핵심 매체는 독립선언서와 깃발・격문인데 시기적으로 빠르고 도시화된 지역에 가까울수록 선언서 네트워크가 운동의 중심으로 작동했으며,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고 비도시 지역으로 확산될수록 깃발・격문 네트워크가 운동의 중심으로 작동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물론 운동 주체가 학생・종교인에서 일반 농민으로 전화・확산되는 과정과도 관련이 있다. 이기훈, 「3.1운동과 깃발」, 『동방학지』 제185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8 참고.

52) 「騷密 第2854號, 騷擾事件에 관한 民情彙報(제22보), 1919.5.23.」, 『소요사건서류 7-7』. 이기훈은 이를 두고 '등사기 네트워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기훈, 위의 글, 10면.

53) 「第5884號, 獨立運動ニ關スル件(제6보), 1919.3.5.」, 『소요사건서류 7-7』; 「平北地第356號, 騷擾ニ關スル件報告, 1919.3.28.」, 『도장관보고철 7-4』; 김승태, 「의주에서의 3.1운동과 유여대 목사」,

크'와 '음성 네트워크'라고 부를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두 네트워크의 기동은 공간적으로 구분되었다.




〈그림 4〉 3.1운동의 매체 중 깃발, 문서, 구호의 비교.

전반적인 비중은 낮지만 노래와 불의 대조도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 노래가 매체로 등장하는 송도면, 마산부, 해주면, 의주면, 선천면, 원산부 등 6곳을 보면 예외 없이 교회-학생 네트워크가 운동을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래는 많은 경우 찬송가가 불렸다. 교회가 개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애국가가 불리기도 했다. 마산부의 경우 마산공립보통학교 학생이 4월 22일-24일 연속하여 '애국가'를 부르며 시위를 감행했다.[54]

한편 운동 매체로서 불은 대부분 '산상 횃불 시위'에서 등장한다. 전형적인 농촌의 운동 매체인 셈이다. 도시 지역이라도 운동 양태는 대개 유사하다. 청주면의 경우 시내 시위의 연속선에서 4월 2일 인근 산 위에서 봉화를 밝히고 시위를 벌였다.[55] 도시에서 시작된 운동이 주변 비도시로 확산되면

『기독교사상』 통권 제715호, 대한기독교서회, 2018 참고.

54) 「騷密 第868號, 獨立運動ニ關スル件(제58보), 1919.4.25.」, 『소요사건서류 7-7』.

55) 「高 第9833號, 獨立運動ニ關スル件(제37보), 1919.4.4.」, 『소요사건서류 7-7』.

서 '산상 횃불 시위' 방식이 등장한 것이다. 부 지역 중 유일하게 불이 매체로 등장하는 것은 경성부의 3월 23일, 27일 시위이다. 그런데 이 두 차례 시위는 일반 군중과 남만철 경성관리국 노동자 등이 주도하여 벌어진 경성부 3.1운동 중 가장 '과격한' 것이었다. 황톳불이 등장하며, 그 밖에도 격렬한 투석 시위의 형태를 보이는 등 경성부의 일반적 운동 양태와는 구분되는 도시 민중 봉기적 성격을 보인다.[56]

낙서와 기타는 매체로서 비중이 너무 낮으며 형태도 다양하여 경향성을 분석할 여지는 많지 않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특정한 도시이기 때문에 가능한 특징을 보여주기도 한다. 예컨대 3월 3일 경성부에서 정태영이라는 사람이 시위를 선동하기 위해 심야 종로 보신각에 몰래 들어가 종을 친 것은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다.[57]

## 5. 운동 발발의 시점과 시간대

마지막으로 운동 발발의 시점과 각각의 발발 시간대를 살펴보겠다. 운동 발발의 시점은 지역별로 운동의 선도성과 지속성, 그리고 전파 경로를 어느 정도 암시해주는 기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거시적인 경향성 파악이 주안점이므로 3.1운동 기간을 임의적으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한정하고 10일 단위로 나누어 2개월, 60일 6개 시기로 나누었다. 그 결과도 도시와 비도시의 차이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

〈표 6〉 도시 지역의 3.1운동의 발발 시점

| | 3월1일-10일 | 3월11일-20일 | 3월21일-31일 | 4월1일-10일 | 4월11일-20일 | 4월21일-30일 |
|---|---|---|---|---|---|---|
| 부 | 85 | 13 | 28 | 20 | 10 | 7 |
| | 52.1% | 8.0% | 17.2% | 12.3% | 6.1% | 4.3% |
| 부+지정면 | 118 | 38 | 63 | 43 | 13 | 8 |
| | 41.7% | 13.4% | 22.3% | 15.2% | 4.6% | 2.8% |

56) 「高 第8468號, 獨立運動ニ關スル件(제25보), 1919.3.24.」, 『소요사건서류 7-7』; 「暴動ニ因ル電車被害調査書(3月27日)」, 경성지방법원 검사국문서 자료.

57) 「이계창 등 30명 판결문」, 삼일디비, http://db.history.go.kr/samil/SAMIL?ID=DOCUMENT:sen_1633(2019.06.30 검색).

| | | | | | | |
|---|---|---|---|---|---|---|
| 부+지정면+보통면 일부 | 140 | 60 | 87 | 71 | 15 | 9 |
| | 36.6% | 15.7% | 22.8% | 18.6% | 3.9% | 2.4% |
| 조선 전체 | 400 | 402 | 608 | 698 | 131 | 38 |
| | 17.6% | 17.7% | 26.7% | 30.7% | 5.8% | 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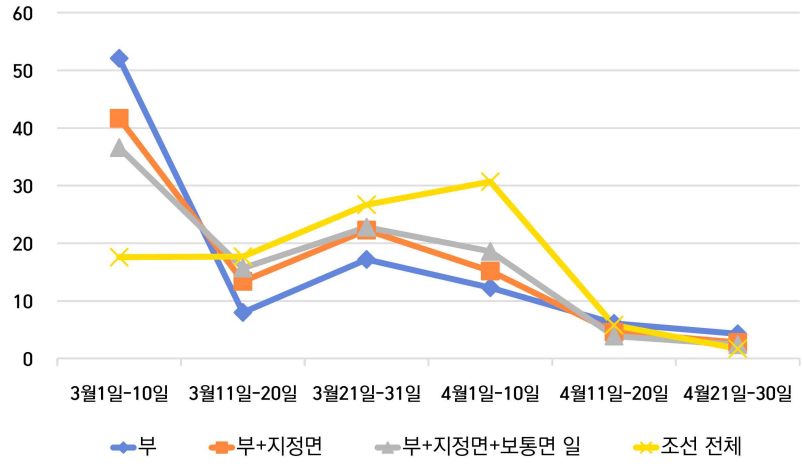
부의 경우 3월 상순의 발발 건수가 절반을 넘으며 3월 중순 급락했다가 3월 하순-4월 상순 다시 재개, 4월 중순 이후 점차 사그라드는 경로를 밟는다. 부+지정면, 부+지정면+보통면 일부도 기본적으로 같은 경향성을 보이나 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운동의 상승과 하강 곡선이 완만하다. 그런데 조선 전체로 오면 경향성 자체가 달라진다. 3월 중순까지는 운동의 빈도가 도시에 비해 분명히 낮다가 3월 하순-4월 상순으로 가면서 빈도가 확연하게 올라간다. 이 시기가 비도시에서는 운동의 절정기임을 알 수 있다. 4월 중순 이후에는 도시와 마찬가지로 운동이 급격하게 사그라드는데 그 속도는 미세하게나마 도시보다 더 빠르다. 목적의식적 운동 주체의 비중이 그만큼 낮은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운동의 상승과 하강은 주체의 의지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당연하게도 일제 탄압의 강도가 주요 변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면 도시 지역의 3.1운동은 선도적으로 일어났지만 초기에 강경한 탄압을 당하여 빨리 무너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3월 하순 한차례 변곡점이 있었지만 다시 무너졌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런 경향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도시는 평양부이다. 평양부는 2개월간 집계되는 운동 건수 28건 중 23건이 3월 상순에 집중되어 있다. 평양부는 3월 1일 당일 장로교 숭덕학교, 감리교 남산현교회, 설암리 천도교구당에서 동시에 독립선언식을 열고 삼대 종교 세력이 합류하여 시가 행진을 시작하는 등 3.1운동 개시의 상징성을 갖는 도시이다. 그런 만큼 1일 밤부터 시위 진압을 위해 군대가 투입되었으며, 총격 사망자가 나오는 등 탄압의 강도도 높았다.[58] 11건 중 3월 상순에만 8건의 운동이 있었던 함흥면에서도 초기부터 경찰뿐 아니라 소방조의 도끼, 쇠창살 등을 이용한 무자비한 진압

58) 정병욱, 「3.1운동의 참여자와 목격자」, 염복규 외, 앞의 책, 184-185면.

이 있었고, 보병 2개 소대가 출동하기까지 했다.[59]




〈그림 5〉 3.1운동의 발발 시점별 건수 비교.

운동의 시간대는 그를 특정한 건수가 전체의 절반 정도(1,222/2,46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참고적 의미밖에 없다. 도시와 조선 전체는 크게 다른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눈에 띄는 것은 도시가 상대적으로 오후의 비율이 약간 높은 반면, 조선 전체는 야간의 비율이 다소 높은 점이 아닌가 한다. 이 정도가 도시와 비도시 사이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다.

〈표 7〉 도시 지역 3.1운동의 발발 시간대

| | 새벽 | 오전 | 오후 | 야간 |
|---|---|---|---|---|
| 부 | 6 | 12 | 35 | 20 |
| | 8.2% | 16.4% | 47.9% | 27.4% |
| 부+지정면 | 8 | 19 | 70 | 39 |
| | 5.9% | 14.0% | 51.5% | 28.7% |
| 부+지정면+보통면 일부 | 10 | 24 | 93 | 56 |
| | 5.5% | 13.1% | 50.8% | 30.6% |
| 조선 전체 | 61 | 182 | 509 | 470 |
| | 5.0% | 14.9% | 41.7% | 38.5% |

59) 「高 第5884號, 獨立運動ニ關スル件(제6보), 1919.3.5.」, 『소요사건서류 7-7』.

도시의 경우 오후의 비율이 높은 것은 학생이 운동의 주요 주체인 것과 관계가 있다. 그리고 야간으로 분류한 운동의 경우 대부분 산에 올라가서 횃불을 밝히는 이른바 '산상 횃불 시위'이다.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산상 횃불 시위는 전형적인 비도시의 운동 유형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점은 앞에서 보았듯이 비도시에서 운동의 매체로 불의 비율이 높은 점, 운동 주체 중 일반의 비율의 높은 점과 두루 상통한다고 하겠다.

## 6. 맺음말

이상에서 도시 지역 3.1운동의 전개와 특징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분석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1919년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도시란 어디인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았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일차적으로 식민지권력이 행정적 도시로 규정한 부와 지정면을 당시의 '도시'로 보아야 함은 부인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식민지권력이 시가지로 인지하고 있으면서 도시화와 깊은 연관을 맺는 철도역이 입지한 일부 보통면을 도시로 설정했다. 그리고 각 도시의 기본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민족별 인구 비율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운동의 기본 유형과 행동 양상을 살펴보았다. 기본 양상에서 도시는 비도시에 비해 만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를 대신한 것은 학생의 운동일 수밖에 없는 휴학휴교와 행동의 개인성이 높은 기타활동이었다. 또 비중은 낮지만 철시와 파업은 도시의 특징적 행동 양상이었다. 한편 도시는 사실상 운동의 '미수'인 계획의 비중도 비도시보다 낮았다. 도시는 운동의 성공 확률이 높은 공간이었던 것이다. 행동 양상에서는 지역을 막론하고 만세가 주류적 유형이었다. 이와 더불어 파손파괴와 집단항의는 도시와 비도시 사이에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도시의 3.1운동의 폭력성이 비도시보다 낮다고는 볼 수 없다.

이어서 운동의 주체와 매체를 살펴보았다. 운동 주체에서는 지역을 막론하고 일반(절대 다수는 농민), 천도교도, 예수교도, 학생이 3.1운동의 주역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네 주체 중 예수교도는 거의 고른 비율을 보이는 반면, 학생은 도시에서 그리고 일반과 천도교도는 비도시에서 확연하게 높은 비율을 보인다. 또 전체적인 비중은 낮지만 상인과 노동자도 도시에서 높은 비율을 보인다. 운동 매체에서는 깃발, 문서, 구호가 3대 매체였음을 확인했다. 그런데 깃발의 경우 지역을 막론하고 비슷한 비율인 반면 문서와 구호는 각각 도시와 비도시에서 확연하게 높은 비율을 보인다. 두 매체로 대표되는 '문자 네트워크'와 '음성 네트워크'가 서로 구분되는 공간에서 기동하고 있었다는 잠정적 주장이 가능하다. 전체적인 비중은 낮지만 비슷한 대조를 보이는 매체는 노래와 불이다. 예외는 있지만, 노래는 주로 학생-교회-도시의 매체인 반면 불은 농민-비도시의 매체였다.

마지막으로 운동의 발발 시점과 시간대를 살펴보았다. 운동의 발발 시점은 3.1운동이 의미 있게 전개된 기간인 3, 4월을 총 6개 구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대략 도시는 3월 초순에 운동이 활발했다가 중순 하강, 하순 상승, 4월 들어 계속 하강의 순서를 밟는 반면 비도시는 3월 초순부터 서서히 상승, 3월 하순-4월 초순 가장 활발, 중순 이후 급락의 순서를 밟았다. 이는 3.1운동의 선도성과 지속성, 그리고 전파 경로를 기본적으로 보여준다. 새벽, 오전, 오후, 야간으로 나눈 운동의 발발 시간대는 도시와 비도시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도시는 오후, 비도시는 야간의 비율이 약간 높다. 이것도 미미하나마 도시와 비도시 사이의 생활 패턴의 차이, 그에 따른 운동의 주체와 매체 차이 등을 반영한다고 여겨진다.

이 글에서는 오랜 기간 축적된 3.1운동의 지역 사례 연구와 국사편찬위원회 삼일운동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도시와 비도시에서 3.1운동의 양상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물론 이것은 거시적 차원의 데이터 검증일 뿐이므로 한계가 명백하다. 그러나 이를 통해 그간 주로 시간적 순서에 따라 진화·확산된 것으로 이해되었던 3.1운동의 양상을 공간적으로 구분해보아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또 부분적인 사례만으로 주장되었던 사실을 검증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일깨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일종의 '빅데이터' 구축으로 가능해진 방식의 연구의 출발점이며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조금 길게 쓴 프로포잘'에 불과하다. 다양한 변수의 계발 및 이 글에서도 부분적으로 제기한 예외적 상황, 의심스러운 정황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추후의 과제로 하고자 한다. 더불어 사족 하나만 덧붙이자면, 모두에서도 언급했듯이 3.1운동의 사례 연구는 수없이 이루어져 왔고, 또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사례 연구의 특징상 우리 고장, 우리 학교, 우리 종단의 3.1운동을 현창하는 방식이 여전히 적지 않은 점이다. 물론 그런 경향의 연구가 완전히 사라질 리는 만무하지만 삼일디비라는 빅데이터의 구축은 그를 넘어서는, 역설적 의미에서 '거족적 운동으로서 3.1운동상'의 재구축을 가능하게 해주리라 믿는다.

## ▮ 〈부표 1〉 1919년 조선 '도시'의 민족별 인구 비율 상세 내역[60]

| 도 | 부/면 | 일본인 | | 조선인 | | 합계 |
|---|---|---|---|---|---|---|
| 경기도 | 경성 | 67,665 | 27.2% | 178,907 | 72.0% | 248,644 |
| | 인천 | 9,550 | 29.8% | 21,628 | 67.5% | 32,023 |
| | 상하왕십리(한지면) | 23 | 0.3% | 7,308 | 99.7% | 7,331 |
| | 송도 | 1,383 | 3.3% | 40,007 | 96.4% | 41,494 |
| | 수원 | 1,388 | 14.4% | 8,232 | 85.3% | 9,651 |
| | 오산(성호면) | 271 | 11.6% | 2,017 | 86.1% | 2,342 |
| | 영등포 | 933 | 32.9% | 1,886 | 66.5% | 2,834 |
| | 평택(병남면) | 454 | 16.5% | 2,252 | 82.1% | 2,744 |
| 충청북도 | 청주 | 1,920 | 41.0% | 2,700 | 57.7% | 4,683 |
| | 부강(부용) | 216 | 13.3% | 1,395 | 86.1% | 1,621 |
| | 추풍령(황금) | 192 | 10.8% | 1,580 | 89.1% | 1,774 |
| | 황간 | 204 | 10.9% | 1,660 | 88.6% | 1,874 |
| | 영동 | 437 | 18.3% | 1,891 | 79.2% | 2,388 |
| | 옥천 | 372 | 14.9% | 2,096 | 84.1% | 2,493 |
| 충청남도 | 공주 | 1,467 | 20.8% | 5,495 | 77.7% | 7,068 |
| | 조치원 | 1,149 | 25.9% | 3,194 | 71.9% | 4,441 |
| | 대전 | 5,260 | 71.6% | 2,015 | 27.4% | 7,349 |
| | 강경 | 1,595 | 24.2% | 4,791 | 72.7% | 6,588 |
| | 논산 | 580 | 15.8% | 3,022 | 82.5% | 3,661 |
| 전라북도 | 군산 | 6,809 | 50.1% | 6,581 | 48.4% | 13,604 |
| | 전주 | 3,232 | 23.3% | 10,551 | 76.1% | 13,857 |
| | 익산 | 1,840 | 47.6% | 1,961 | 50.7% | 3,865 |
| | 김제 | 708 | 27.2% | 1,840 | 70.8% | 2,599 |
| | 신태인(용북) | 450 | 32.6% | 922 | 66.8% | 1,380 |
| | 정읍 | 788 | 20.7% | 2,989 | 78.6% | 3,802 |
| 전라남도 | 목포 | 4,853 | 31.7% | 10,348 | 67.6% | 15,314 |
| | 광주 | 2,922 | 24.1% | 9,159 | 75.4% | 12,148 |
| | 송정리(송정) | 413 | 28.8% | 996 | 69.6% | 1,432 |
| | 나주 | 741 | 14.8% | 4,241 | 85.0% | 4,990 |
| | 영산포(나신) | 782 | 44.8% | 931 | 53.3% | 1,746 |
| 경상북도 | 대구 | 12,603 | 30.4% | 28,609 | 69.1% | 41,413 |
| | 김천 | 1,624 | 18.6% | 7,010 | 80.5% | 8,710 |
| | 포항 | 1,696 | 35.6% | 3,052 | 64.1% | 4,764 |
| | 왜관 | 487 | 18.9% | 2,075 | 80.5% | 2,578 |
| | 약목 | 158 | 4.3% | 3,508 | 95.6% | 3,670 |
| 경상남도 | 부산 | 30,499 | 41.1% | 43,424 | 58.6% | 74,138 |
| | 마산 | 3,831 | 24.0% | 12,054 | 75.5% | 15,967 |
| | 진주 | 2,256 | 17.7% | 10,453 | 82.0% | 12,744 |
| | 진해 | 3,948 | 90.0% | 441 | 10.0% | 4,389 |
| | 창원 | 92 | 2.8% | 3,141 | 97.1% | 3,235 |
| | 통영 | 2,597 | 18.3% | 11,608 | 81.6% | 14,218 |

| | | | | | | |
|---|---|---|---|---|---|---|
| | 구포 | 633 | 22.2% | 2,198 | 77.2% | 2,848 |
| | 밀양 | 873 | 11.3% | 6,824 | 88.4% | 7,716 |
| | 삼랑진(하동) | 756 | 21.1% | 2,820 | 78.9% | 3,576 |
| 강원도 | 춘천 | 1,242 | 32.7% | 2,523 | 66.4% | 3,797 |
| | 철원 | 356 | 6.7% | 4,917 | 92.8% | 5,301 |
| | 평강 | 133 | 3.3% | 3,848 | 96.0% | 4,009 |
| 황해도 | 해주 | 1,546 | 10.6% | 12,945 | 89.0% | 14,539 |
| | 금천 | 128 | 7.7% | 1,524 | 92.1% | 1,655 |
| | 사리원(사원) | 548 | 8.8% | 5,632 | 90.4% | 6,233 |
| | 신막(화회) | 632 | 19.2% | 2,646 | 80.3% | 3,297 |
| | 서흥 | 125 | 2.8% | 4,364 | 96.9% | 4,504 |
| | 한포(금암) | 103 | 6.3% | 1,511 | 92.9% | 1,626 |
| | 남천(보산) | 100 | 7.8% | 1,168 | 91.3% | 1,280 |
| | 황주 | 465 | 9.2% | 4,565 | 90.4% | 5,051 |
| | 흑교 | 50 | 10.1% | 444 | 89.9% | 494 |
| | 겸이포 | 3,060 | 40.8% | 4,040 | 53.9% | 7,496 |
| 평안남도 | 평양 | 14,878 | 22.3% | 51,062 | 76.6% | 66,674 |
| | 진남포 | 7,283 | 24.4% | 22,130 | 74.1% | 29,877 |
| | 신안주 | 460 | 24.8% | 1,385 | 74.8% | 1,852 |
| | 중화 | 138 | 4.7% | 2,805 | 95.0% | 2,952 |
| | 순안 | 49 | 2.2% | 2,126 | 97.2% | 2,188 |
| 평안북도 | 신의주 | 3,575 | 37.4% | 3,546 | 37.1% | 9,551 |
| | 의주 | 787 | 7.4% | 9,568 | 90.4% | 10,588 |
| | 선천 | 699 | 7.8% | 8,061 | 90.4% | 8,913 |
| | 정주 | 774 | 19.8% | 3,087 | 79.0% | 3,907 |
| | 곽산 | 92 | 3.1% | 2,813 | 95.6% | 2,941 |
| | 차련관(참면) | 48 | 2.1% | 2,185 | 97.4% | 2,243 |
| 함경남도 | 원산 | 7,577 | 29.5% | 17,618 | 68.7% | 25,645 |
| | 함흥 | 3,092 | 17.3% | 14,709 | 82.3% | 17,870 |
| | 고원(하발) | 90 | 4.7% | 1,783 | 94.1% | 1,895 |
| | 영흥(홍인) | 367 | 8.7% | 3,801 | 90.5% | 4,201 |
| 함경북도 | 청진 | 4,559 | 42.4% | 5,980 | 55.6% | 10,762 |
| | 나남 | 3,504 | 57.0% | 2,519 | 40.9% | 6,152 |
| | 수성(용성) | 91 | 8.2% | 1,010 | 91.5% | 1,104 |
| | 회령 | 2,081 | 19.2% | 8,702 | 80.2% | 10,846 |
| | 성진 | 1,145 | 20.1% | 4,497 | 79.0% | 5,691 |
| 도시 합계 | | 240,427 | 25.3% | 699,326 | 73.5% | 950,840 |
| 조선 전체 | | 346,619 | 2.0% | 16,783,510 | 97.9% | 17,149,909 |

60)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9. 면명에서 괄호가 있는 것의 괄호 밖은 통계연보 '主要市街地戶口'에 표기된 면내 시가지인 동리명이며 괄호 안은 그 동리를 포함한 면임.

## ▮ 〈부표 2〉 도시 지역 3.1운동의 기본 유형 상세 내역

| 도 | 부/면 | 시위 | 철시 | 파업 | 휴학휴교 | 계획 | 기타활동 |
|---|---|---|---|---|---|---|---|
| 경기 | 경성 | 30 | 3 | 1 | 20 | 6 | 41 |
| | 인천 | 2 | 2 | | 2 | 1 | 1 |
| | 한지 | 5 | | | | 2 | 1 |
| | 송도 | 7 | 1 | | 2 | 5 | 2 |
| | 수원 | 6 | | | | | |
| | 성호 | 2 | | | | 1 | |
| | 영등포 | 4 | 1 | | | | |
| | 병남 | 3 | 1 | | | | |
| 충북 | 청주 | 1 | | | 1 | | 1 |
| | 부용 | 3 | | | | | |
| | 황금 | 3 | | | | | |
| | 황간 | | | | | | |
| | 영동 | 1 | | | | | 1 |
| | 옥천 | | | | | | |
| 충남 | 공주 | 2 | | | | 1 | |
| | 조치원 | 1 | | | | | |
| | 대전 | 2 | | | | 1 | |
| | 강경 | 4 | 1 | | | 1 | 2 |
| | 논산 | 2 | | | | | |
| 전북 | 군산 | 1 | | | | 1 | 4 |
| | 전주 | 2 | | | | | 2 |
| | 익산 | 1 | | | | | |
| | 김제 | | | | | 2 | |
| | 용북 | | | | | | 1 |
| | 정읍 | 1 | | | | 1 | |
| 전남 | 목포 | 2 | | | | | 1 |
| | 광주 | 3 | 1 | | 1 | | 1 |
| | 송정 | | | | | | 1 |
| | 나주 | | | | | | |
| | 나신 | | | | | | |
| 경북 | 대구 | 4 | 1 | | 2 | | 2 |
| | 김천 | 3 | | | | 2 | |
| | 포항 | | | | | 2 | |
| | 왜관 | | | | | | |
| | 약목 | 1 | | | | 1 | |
| 경남 | 부산 | 3 | | | 2 | 2 | 3 |
| | 마산 | 7 | | | | 2 | 2 |
| | 진주 | 6 | | | | | 2 |
| | 진해 | | | | | | |
| | 창원 | 2 | | | | | |
| | 통영 | 3 | | | | 1 | 2 |

| | | | | | | | |
|---|---|---|---|---|---|---|---|
| | 구포 | 1 | | | | | |
| | 밀양 | 3 | | | | 1 | |
| | 하동 | 2 | | | | 2 | 1 |
| 강원 | 춘천 | 1 | | | | | 1 |
| | 철원 | 4 | | | | 1 | |
| | 평강 | 3 | 1 | | | | |
| 황해 | 해주 | 7 | 1 | | | 4 | 1 |
| | 금천 | 2 | | | | | |
| | 사원 | 2 | | | | | 1 |
| | 화회 | 1 | | | | | |
| | 서흥 | 1 | | | | | |
| | 금암 | 1 | | | | | |
| | 보산 | 3 | | | | | 1 |
| | 황주 | 2 | | | | 1 | |
| | 흑교 | | | | | | |
| | 겸이포 | | | | | | |
| 평남 | 평양 | 10 | 1 | | 12 | 2 | 11 |
| | 진남포 | 2 | | | | | 1 |
| | 신안주 | | | | | | |
| | 중화 | 2 | | | | 1 | |
| | 순안 | 1 | | | | | |
| 평북 | 신의주 | 4 | | | | | |
| | 의주 | 8 | 1 | | | 1 | 2 |
| | 선천 | 4 | 1 | 1 | 1 | 1 | 3 |
| | 정주 | 2 | | | | 1 | |
| | 곽산 | 1 | | | | 2 | |
| | 참면 | 1 | | | | | |
| 함남 | 원산 | 1 | 1 | | | | 2 |
| | 함흥 | 3 | 2 | | 5 | | 3 |
| | 하발 | 1 | | | | | 1 |
| | 홍인 | 1 | | | | | |
| 함북 | 청진 | 3 | 1 | | | | 2 |
| | 나남 | | | | | 1 | |
| | 용성 | 1 | | | | 1 | |
| | 회령 | 3 | | | | 1 | 1 |
| | 성진 | 2 | | | | | 2 |
| 도시 합계 | | 200 | 20 | 2 | 48 | 52 | 103 |
| | | 47.1% | 4.7% | 0.5% | 11.3% | 12.2% | 24.2% |
| 조선 전체 | | 1692 | 25 | 3 | 61 | 350 | 333 |
| | | 68.7% | 1.0% | 0.1% | 2.5% | 14.2% | 13.5% |

## ▮ 〈부표 3〉 도시 지역 3.1운동의 행동 양상 상세 내역

| 도 | 부/면 | 만세 | 집단항의 | 파손파괴 | 폭행 | 처단 | 방화 |
|---|---|---|---|---|---|---|---|
| 경기 | 경성 | 31 | | 8 | 4 | | |
| | 인천 | 3 | | 1 | | | |
| | 한지 | 6 | | 1 | | | |
| | 송도 | 11 | 3 | 1 | 4 | | |
| | 수원 | 6 | | 1 | 1 | | |
| | 성호 | 1 | 1 | 1 | 1 | | 1 |
| | 영등포 | 4 | | | | | |
| | 병남 | 3 | | | 1 | | |
| 충북 | 청주 | 1 | 1 | | | | |
| | 부용 | 3 | | | | | |
| | 황금 | 2 | | | | | 1 |
| | 황간 | | | | | | |
| | 영동 | 1 | 1 | | 1 | | |
| | 옥천 | | | | | | |
| 충남 | 공주 | 2 | | | | | |
| | 조치원 | 1 | | | | | |
| | 대전 | 2 | 1 | | | | |
| | 강경 | 5 | 1 | | | | 1 |
| | 논산 | 2 | | | | | |
| 전북 | 군산 | 2 | 1 | | | | 1 |
| | 전주 | 2 | | | | | |
| | 익산 | 1 | 1 | | | | |
| | 김제 | 2 | | | | | |
| | 용북 | | | | | | 1 |
| | 정읍 | 1 | | | | | |
| 전남 | 목포 | 2 | | | | | |
| | 광주 | 3 | | | | | |
| | 송정 | | | | | | |
| | 나주 | | | | | | |
| | 나신 | | | | | | |
| 경북 | 대구 | 4 | | | | | |
| | 김천 | 4 | | | | | |
| | 포항 | 2 | | | | | |
| | 왜관 | | | | | | |
| | 약목 | 2 | | | | | |
| 경남 | 부산 | 5 | | 1 | | | |
| | 마산 | 9 | | | | | |
| | 진주 | 5 | 3 | | | | |
| | 진해 | | | | | | |
| | 창원 | 2 | | | | | |

| | | | | | | | |
|---|---|---|---|---|---|---|---|
| | 통영 | 4 | 1 | | | | |
| | 구포 | 1 | 1 | 1 | | | |
| | 밀양 | 4 | | | | | |
| | 하동 | 4 | | | | | |
| 황해 | 해주 | 10 | 1 | | 1 | | |
| | 금천 | 2 | | | | | |
| | 사원 | 1 | | | | | |
| | 화회 | | | | | | |
| | 서흥 | | | | | | |
| | 금암 | 1 | 1 | | | | |
| | 보산 | 3 | 1 | | 1 | | |
| | 황주 | 3 | 1 | 1 | | | |
| | 흑교 | | | | | | |
| | 겸이포 | | | | | | |
| 평남 | 평양 | 10 | | 2 | 1 | | |
| | 진남포 | 2 | | 1 | | | |
| | 신안주 | | | | | | |
| | 중화 | 3 | | | | | |
| | 순안 | 1 | | | | | |
| 평북 | 신의주 | 4 | | | | | |
| | 의주 | 8 | | | 3 | | |
| | 선천 | 4 | | | | | |
| | 정주 | 3 | | | 1 | | |
| | 곽산 | 3 | | | | | |
| | 참면 | 1 | | 1 | 1 | | |
| 강원 | 춘천 | 1 | | | | | |
| | 철원 | 4 | | | | | |
| | 평강 | 3 | | | | | |
| 함남 | 원산 | 1 | | | | | |
| | 함흥 | 3 | | | | | 1 |
| | 하발 | 1 | | | | | |
| | 홍인 | 1 | | | | | |
| 함북 | 청진 | 3 | | | | | |
| | 나남 | 1 | | | | | |
| | 용성 | 2 | | | | | |
| | 회령 | 3 | | | | | |
| | 성진 | 2 | | | 1 | | |
| 도시 합계 | | 227 | 19 | 20 | 21 | 0 | 6 |
| | | 77.5% | 6.5% | 6.8% | 7.2% | 0.0% | 2.0% |
| 조선 전체 | | 1,841 | 250 | 157 | 182 | 5 | 40 |
| | | 74.4% | 10.1% | 6.3% | 7.4% | 0.2% | 1.6% |

## ▮ 〈부표 4〉 도시 지역 3.1운동의 주체 상세 내역

| 도 | 부/면 | 일반 | 천도교도 | 예수교도 | 대종교도 | 불교도 | 유생 | 상인 | 노동자 | 학생 | 교사 | 관공리 |
|---|---|---|---|---|---|---|---|---|---|---|---|---|
| 경기 | 경성 | 4 | 7 | 6 | 1 | 3 | 2 | 4 | 9 | 40 | 1 | |
| | 인천 | 2 | | | | | | 2 | | 4 | | |
| | 한지 | 3 | | | | | | | | | | |
| | 송도 | 6 | 1 | 3 | | | | 3 | | 8 | | |
| | 수원 | | | 1 | | | | 1 | 5 | 5 | | |
| | 성호 | 1 | 1 | 1 | | | | | | | | |
| | 영등포 | 4 | | | | | | 1 | | | | |
| | 병남 | 2 | | 1 | | | | 1 | | 1 | | |
| 충북 | 청주 | 1 | | | | | | | | 2 | | |
| | 부용 | 3 | | | | | | | | | | |
| | 황금 | 2 | | | | | | | | | | |
| | 황간 | | | | | | | | | | | |
| | 영동 | 1 | | | | | | | | | | |
| | 옥천 | | | | | | | | | | | |
| 충남 | 공주 | 1 | | 1 | | | | | | 1 | | |
| | 조치원 | 1 | | | | | | | | | | |
| | 대전 | 2 | | | | | | | | | | |
| | 강경 | 3 | | 1 | | | | 1 | | | | |
| | 논산 | 2 | | | | | | | | | | |
| 전북 | 군산 | | 1 | 2 | | | | | 1 | 3 | | |
| | 전주 | 2 | 2 | | | | | | | | | |
| | 익산 | 1 | | 1 | | | | | | | | |
| | 김제 | 1 | | | | | | | | | | |
| | 용북 | | | | | | | | | | | |
| | 정읍 | | | | | | | | | | | |
| 전남 | 목포 | | | 3 | | | | | | 1 | | |
| | 광주 | 1 | | 2 | | | | 1 | | 3 | | |
| | 송정 | | | | | | | | | 1 | | |
| | 나주 | | | | | | | | | | | |
| | 나신 | | | | | | | | | | | |
| 경북 | 대구 | 1 | | 3 | | 1 | | 1 | | 6 | | |
| | 김천 | | | 1 | | | | 1 | | 1 | | |
| | 포항 | 1 | | | | | | | | | | |
| | 왜관 | | | | | | | | | | | |
| | 약목 | 1 | | 1 | | | | | | | | |
| 경남 | 부산 | 4 | | 5 | | | | | | 5 | | 1 |
| | 마산 | 4 | | 4 | | | | | | 5 | 1 | |
| | 진주 | 5 | | 1 | | | 1 | | | 1 | | |
| | 진해 | | | | | | | | | | | |
| | 창원 | 2 | | 2 | | | | | | 2 | | |

| | | | | | | | | | | | | |
|---|---|---|---|---|---|---|---|---|---|---|---|---|
| | 통영 | 2 | | 1 | | | | | | 2 | | 2 |
| | 구포 | 1 | | | | | | | | | | |
| | 밀양 | 3 | | 2 | | | | | | 3 | | |
| | 하동 | 2 | | | | | | | | 2 | | 1 |
| 황해 | 해주 | 4 | 2 | 3 | | | | 1 | | 2 | | |
| | 금천 | 2 | | | | | | | | | | |
| | 사원 | 1 | | 1 | | | | | | | | |
| | 화회 | | | | | | | | | | | |
| | 서흥 | | | | | | | | | | | |
| | 금암 | 1 | | 1 | | | | | | | | |
| | 보산 | 3 | | | | | | | | | | |
| | 황주 | | 1 | | | | | | | 1 | | |
| | 흑교 | | | | | | | | | | | |
| | 겸이포 | | | | | | | | | | | |
| 평남 | 평양 | 1 | 1 | 3 | | | | | | 5 | | 1 |
| | 진남포 | | | 2 | | | | | | | | |
| | 신안주 | | | | | | | | | | | |
| | 중화 | | 2 | 2 | | | | | | | | |
| | 순안 | | 1 | 1 | | | | | | 1 | 1 | |
| 평북 | 신의주 | 1 | 2 | 2 | | | | 1 | | | | |
| | 의주 | | 3 | 5 | | | | | | 1 | | |
| | 선천 | | 3 | 5 | | | | | | 2 | | |
| | 정주 | | 1 | 1 | | | | | | | | |
| | 곽산 | | | | | | | | | | | |
| | 참면 | | 1 | 1 | | | | | | | | |
| 강원 | 춘천 | | 1 | 1 | | | | | | | | |
| | 철원 | 3 | | | | | | | | 1 | | |
| | 평강 | 1 | | | | | | 1 | | | | |
| 함남 | 원산 | 1 | | 2 | | | | 1 | | | | |
| | 함흥 | 1 | | 3 | | | | 2 | | 8 | | |
| | 하발 | | 1 | 1 | | | | | | | | |
| | 홍인 | 1 | | | | | | | | | | |
| 함북 | 청진 | 3 | 2 | | | | | 2 | | 2 | | |
| | 나남 | | | | | | | | | | | |
| | 용성 | | 1 | | | | | | | | | |
| | 회령 | | | 2 | | | | | | 2 | | |
| | 성진 | 2 | 2 | 2 | | | | | | 1 | | |
| 도시 합계 | | 94 | 36 | 80 | 1 | 4 | 3 | 24 | 15 | 122 | 3 | 5 |
| | | 24.3% | 9.3% | 20.7% | 0.3% | 1.0% | 0.8% | 6.2% | 3.9% | 31.5% | 0.8% | 1.3% |
| 조선 전체 | | 1,008 | 294 | 385 | 3 | 12 | 25 | 31 | 31 | 360 | 22 | 40 |
| | | 45.6% | 13.3% | 17.4% | 0.1% | 0.5% | 1.1% | 1.4% | 1.4% | 16.3% | 1.0% | 1.8% |

## ▮ 〈부표 5〉 도시 지역 3.1운동의 매체 상세 내역

| 도 | 부/면 | 깃발 | 문서 | 노래 | 구호 | 불 | 낙서 | 기타 |
|---|---|---|---|---|---|---|---|---|
| 경기 | 경성 | 14 | 38 | | 11 | 2 | | 5 |
| | 인천 | | 3 | | 1 | | 1 | |
| | 한지 | 1 | 1 | | 3 | | | |
| | 송도 | 1 | 4 | 2 | 3 | 1 | | |
| | 수원 | | | | | | | |
| | 성호 | 1 | | | 1 | | | |
| | 영등포 | | | | | | | |
| | 병남 | | 1 | | 1 | 1 | | |
| 충북 | 청주 | | 2 | | 1 | 1 | | |
| | 부용 | | | | 2 | 2 | | |
| | 황금 | 2 | | | 2 | | | |
| | 황간 | | | | | | | |
| | 영동 | 1 | | | 1 | | | |
| | 옥천 | | | | | | | |
| 충남 | 공주 | 1 | 1 | | 2 | | | |
| | 조치원 | | | | 1 | 1 | | |
| | 대전 | 2 | 2 | | 2 | | | |
| | 강경 | 3 | 1 | | 3 | | | 1 |
| | 논산 | | | | 1 | | | |
| 전북 | 군산 | 1 | 3 | | 2 | | | |
| | 전주 | 1 | 1 | | 1 | | | |
| | 익산 | 1 | 1 | | 1 | | | |
| | 김제 | | 1 | | | | | |
| | 용북 | | | | | | | |
| | 정읍 | 1 | | | | | | |
| 전남 | 목포 | 2 | 2 | | 2 | | | |
| | 광주 | 1 | 3 | | 2 | | | |
| | 송정 | | 1 | | | | | |
| | 나주 | | | | | | | |
| | 나신 | | | | | | | |
| 경북 | 대구 | 3 | 4 | | 4 | | 1 | |
| | 김천 | 1 | 1 | | 2 | | | |
| | 포항 | | | | | | | |
| | 왜관 | | | | | | | |
| | 약목 | | | | 1 | | | |
| 경남 | 부산 | 1 | 1 | | 3 | | | |
| | 마산 | 3 | 1 | 3 | 7 | | | |
| | 진주 | 2 | 3 | | 5 | | | 1 |
| | 진해 | | | | | | | |
| | 창원 | 1 | | | 2 | | | |
| | 통영 | 2 | 3 | | 3 | | | |

| | | | | | | | | |
|---|---|---|---|---|---|---|---|---|
| | 구포 | | 1 | | 1 | | | |
| | 밀양 | 1 | 1 | | 3 | | | 1 |
| | 하동 | 3 | 1 | | 3 | | | |
| 황해 | 해주 | 4 | 2 | 1 | 7 | | | |
| | 금천 | | | | 2 | | | |
| | 사원 | 1 | 1 | | 1 | | | |
| | 화회 | | | | | | | |
| | 서흥 | | | | | | | |
| | 금암 | | | | 1 | 1 | | |
| | 보산 | 1 | | | 3 | | | |
| | 황주 | | 1 | | 2 | | | |
| | 흑교 | | | | | | | |
| | 겸이포 | | | | | | | |
| 평남 | 평양 | 4 | 7 | 1 | 3 | | | |
| | 진남포 | 1 | 2 | | | | | |
| | 신안주 | | | | | | | |
| | 중화 | 1 | 1 | | 1 | | | |
| | 순안 | 1 | | | 1 | | | |
| 평북 | 신의주 | | 1 | | 1 | | | |
| | 의주 | 3 | 6 | 1 | 3 | | | |
| | 선천 | 2 | 3 | 1 | | | | |
| | 정주 | 1 | | | 1 | | | |
| | 곽산 | | 1 | | | | | |
| | 참면 | 1 | | | | | | |
| 강원 | 춘천 | | 1 | | 1 | | | |
| | 철원 | 2 | | | 3 | | | |
| | 평강 | 1 | 1 | | 1 | | | |
| 함남 | 원산 | 1 | 3 | 1 | 1 | | | |
| | 함흥 | 2 | 4 | | 3 | | | |
| | 하발 | 1 | 1 | | 1 | | | |
| | 홍인 | 1 | | | 1 | | | |
| 함북 | 청진 | 3 | 3 | | 2 | | | 1 |
| | 나남 | | | | | | | |
| | 용성 | 1 | 1 | | 1 | | | |
| | 회령 | 2 | 1 | | 2 | | | |
| | 성진 | 2 | 3 | | 2 | | | 1 |
| 도시 합계 | | 86 | 124 | 10 | 121 | 9 | 2 | 10 |
| | | 23.8% | 34.3% | 2.8% | 33.4% | 2.5% | 0.6% | 2.8% |
| 조선 전체 | | 497 | 444 | 24 | 1015 | 141 | 4 | 27 |
| | | 23.1% | 20.6% | 1.1% | 47.2% | 6.6% | 0.2% | 1.3% |

## ▮ 〈부표 6〉 도시 지역 3.1운동의 발발 시점 상세 내역

| 도 | 부/면 | 3월1일-10일 | 3월11일-20일 | 3월21일-31일 | 4월1일-10일 | 4월11일-20일 | 4월21일-30일 |
|---|---|---|---|---|---|---|---|
| 경기 | 경성 | 40 | 7 | 15 | 5 | 6 | 2 |
| | 인천 | 4 | | 1 | 1 | | |
| | 한지 | 1 | | 6 | 1 | | |
| | 송도 | 8 | | 3 | 3 | | |
| | 수원 | | | 6 | | | |
| | 성호 | | 1 | 2 | | | |
| | 영등포 | | | 4 | 1 | | |
| | 병남 | | 1 | 1 | 2 | | |
| 충북 | 청주 | 2 | | | 1 | | |
| | 부용 | | | 1 | 2 | | |
| | 황금 | | | | 3 | | |
| | 황간 | | | | | | |
| | 영동 | | | 1 | 1 | | |
| | 옥천 | | 2 | | | | |
| 충남 | 공주 | | 2 | | 1 | | |
| | 조치원 | | | 1 | | | |
| | 대전 | | 1 | 1 | 1 | | |
| | 강경 | 1 | 3 | 1 | 3 | | |
| | 논산 | | | | 2 | | |
| 전북 | 군산 | 3 | 1 | 3 | | | |
| | 전주 | | 2 | | 1 | | |
| | 익산 | | | | 1 | | |
| | 김제 | 1 | | 1 | | | |
| | 용북 | | | | | 1 | |
| | 정읍 | | | 1 | 1 | | |
| 전남 | 목포 | | | | 3 | | |
| | 광주 | 1 | 3 | 1 | 1 | | |
| | 송정 | | 2 | | | | |
| | 나주 | | | | | | |
| | 나신 | | | | | | |
| 경북 | 대구 | 5 | | 1 | 1 | 2 | |
| | 김천 | 1 | 2 | 1 | 2 | | |
| | 포항 | 1 | 1 | 1 | | | |
| | 왜관 | | | | | | |
| | 약목 | | 1 | | 1 | | |
| 경남 | 부산 | 2 | 1 | | 4 | 1 | 1 |
| | 마산 | 1 | 3 | 3 | 1 | | 3 |
| | 진주 | | 3 | 2 | 1 | 1 | |
| | 진해 | | | | | | |
| | 창원 | | | 1 | 1 | | |

| | | | | | | | |
|---|---|---|---|---|---|---|---|
| | 통영 | | 2 | 3 | 1 | | |
| | 구포 | | | 1 | | | |
| | 밀양 | | 3 | | 1 | | |
| | 하동 | | 2 | 1 | 1 | | |
| 황해 | 해주 | 5 | 1 | 5 | 2 | | |
| | 금천 | | | | 2 | | |
| | 사원 | 1 | | | 1 | 1 | |
| | 화회 | | | | 1 | | |
| | 서흥 | | 1 | | | | |
| | 금암 | | | 1 | | | |
| | 보산 | | | | 4 | | |
| | 황주 | 2 | 1 | | | | |
| | 흑교 | | | | | | |
| | 겸이포 | | | | | | |
| 평남 | 평양 | 23 | 1 | 1 | 2 | | 1 |
| | 진남포 | 3 | | | | | |
| | 신안주 | | | | | | |
| | 중화 | 2 | | 1 | | | |
| | 순안 | 1 | | | | | |
| 평북 | 신의주 | 2 | | 1 | 1 | | |
| | 의주 | 3 | | 3 | 2 | | |
| | 선천 | 7 | 1 | 2 | 1 | | 1 |
| | 정주 | 2 | | 1 | | | |
| | 곽산 | 2 | | 1 | | | |
| | 참면 | 1 | | | | | |
| 강원 | 춘천 | 1 | | 1 | | | 1 |
| | 철원 | 2 | 2 | 1 | | | |
| | 평강 | | | 1 | 3 | | |
| 함남 | 원산 | 2 | | | 1 | | |
| | 함흥 | 8 | | | 1 | 2 | |
| | 하발 | | 2 | | | | |
| | 홍인 | | 1 | | | | |
| 함북 | 청진 | | | 3 | 1 | 1 | |
| | 나남 | | | | 1 | | |
| | 용성 | | 2 | | | | |
| | 회령 | 1 | 2 | 2 | | | |
| | 성진 | 1 | 3 | | | | |
| 도시 합계 | | 140 | 60 | 87 | 71 | 15 | 9 |
| | | 36.6% | 15.7% | 22.8% | 18.6% | 3.9% | 2.4% |
| 조선 전체 | | 400 | 402 | 608 | 698 | 131 | 38 |
| | | 17.6% | 17.7% | 26.7% | 30.7% | 5.8% | 1.7% |

## ▮ 〈부표 7〉 도시 지역 3.1운동의 발발 시간대 상세 내역

| 도 | 부/면 | 새벽 | 오전 | 오후 | 야간 |
|---|---|---|---|---|---|
| 경기 | 경성 | 4 | 6 | 17 | 14 |
| | 인천 | 1 | | | |
| | 한지 | | | | 2 |
| | 송도 | | 2 | 3 | 6 |
| | 수원 | | | | 1 |
| | 성호 | | | 1 | 1 |
| | 영등포 | | | | |
| | 병남 | 1 | | 1 | 1 |
| 충북 | 청주 | | | 1 | 1 |
| | 부용 | | | | 2 |
| | 황금 | | 1 | | 2 |
| | 황간 | | | | |
| | 영동 | | | 1 | |
| | 옥천 | | | | |
| 충남 | 공주 | | | 2 | |
| | 조치원 | | | 1 | 1 |
| | 대전 | | | 1 | |
| | 강경 | | | 2 | |
| | 논산 | | | | |
| 전북 | 군산 | | | 1 | |
| | 전주 | | | 2 | 1 |
| | 익산 | | | | |
| | 김제 | | | | |
| | 용북 | | | | 1 |
| | 정읍 | | | | |
| 전남 | 목포 | | | 2 | 2 |
| | 광주 | | | 1 | |
| | 송정 | | | | |
| | 나주 | | | | |
| | 나신 | | | | |
| 경북 | 대구 | | | 2 | |
| | 김천 | | | | 1 |
| | 포항 | | | | |
| | 왜관 | | | | |
| | 약목 | | | | 1 |
| 경남 | 부산 | | | 2 | 2 |
| | 마산 | | | 1 | |
| | 진주 | | 1 | 4 | 3 |
| | 진해 | | | | |
| | 창원 | | | 2 | |
| | 통영 | 1 | | 2 | 1 |

| | | | | | |
|---|---|---|---|---|---|
| | 구포 | | | | |
| | 밀양 | | | 1 | 1 |
| | 하동 | | 1 | 1 | |
| 황해 | 해주 | | | 5 | 3 |
| | 금천 | | | 1 | 1 |
| | 사원 | | | 1 | 1 |
| | 화회 | | | | |
| | 서흥 | | | | |
| | 금암 | | | | 1 |
| | 보산 | | | 1 | 2 |
| | 황주 | | 1 | 1 | |
| | 흑교 | | | | |
| | 겸이포 | | | | |
| 평남 | 평양 | | 4 | 5 | 1 |
| | 진남포 | | 1 | 1 | 1 |
| | 신안주 | | | | |
| | 중화 | | 1 | | |
| | 순안 | | | 1 | |
| 평북 | 신의주 | | | 1 | |
| | 의주 | | 1 | 4 | |
| | 선천 | | | 5 | |
| | 정주 | | | 1 | |
| | 곽산 | | | | |
| | 참면 | | | 1 | |
| 강원 | 춘천 | | | | |
| | 철원 | | | 2 | |
| | 평강 | 1 | | | |
| 함남 | 원산 | | | 1 | |
| | 함흥 | 1 | 1 | 3 | |
| | 하발 | | | | |
| | 홍인 | | | 1 | |
| 함북 | 청진 | 1 | 1 | 2 | |
| | 나남 | | | | |
| | 용성 | | 1 | 1 | 1 |
| | 회령 | | | 2 | |
| | 성진 | | 2 | 2 | 1 |
| 도시 합계 | | 10 | 24 | 93 | 56 |
| | | 5.5% | 13.1% | 50.8% | 30.6% |
| 조선 전체 | | 61 | 182 | 509 | 470 |
| | | 5.0% | 14.9% | 41.7% | 38.5% |

## ▮ 참고문헌

『朝鮮總督府官報』.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9.
南滿洲鐵道株式會社 京城管理局 편, 『朝鮮鐵道旅行案內』, 1918.
朝鮮總督府, 『施政二十五年史』, 1935.

姜再鎬, 『植民地朝鮮の地方制度』, 東京大學出版会, 2001.
권태환, 「日帝時代의 都市化」, 『韓國의 社會와 文化』 제11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251-298면.
김정인, 『오늘과 마주한 3.1운동』, 책과함께, 2019.
김진호・박이준・박철규,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0—국내 3.1운동Ⅱ』,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東亞日報社 편, 『3.1運動50周年紀念論集』, 東亞日報社, 1969.
박준형, 「'조계'에서 '부'로」, 『사회와 역사』 제110집, 한국사회사학회, 2016, 213-251면.
박 현, 「도시 시위의 계보와 3.1운동」, 『3.1운동 100년』 4, 휴머니스트, 2019d, 201-235면.
손정목, 『韓國地方制度・自治史硏究(上)』, 一志社, 1992.
염복규 외, 『경성과 평양의 3.1운동』, 서울역사박물관, 2019.
윤해동, 「일제시기 면제 실시와 근대적 관료행정제도의 도입」, 『한국사학보』 제24호, 고려사학회, 2006, 237-267면.
_____, 「3.1운동의 폭력과 비폭력」, 『사학연구』 제133호, 한국사학회, 2019, 503-545면.
이기훈, 「3.1운동과 깃발」, 『동방학지』 제185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8, 1-19면.
이정섭, 「일제강점기 도시화와 인구이동」, 『대한지리학회지』 제52권 8호, 대한지리학회, 2017, 105-122면.
이정은・김정인,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19—국내 3.1운동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편, 『3.1민족해방운동연구』, 청년사, 1989.
홍순권, 「일제초기의 면 운영과 '조선면제'의 성립」, 『역사와 현실』 제23호, 한국역사연구회, 1997, 139-169면.

「삼일운동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 http://db.history.go.kr/samil/.

【Abstract】

## The progress and characteristics of 3.1 Movement in urban areas

Yum, Bok-Kyu*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March First Movement in 1919 in urban areas, based on the database built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The database classified as the urban areas in colonial Korea as of 1919, a composition of the twelve boos (府, administrative cities designated by the colonial government), the 23 designated myeons (面, lager townships), and some of the non-designated myeons of a relatively large population, many of them located with railway stations.

This paper looks into the categories of the database, including the basic types of the protests, the degrees of violence, the types of participants, the media used in rallies, the temporal developments of the protests, and their usual time-slots of the day.

Major characteristics of the types of protests in the cities are students strikes and other activities, mostly done by not-organized individuals. It reflects the fact that most schools were located in colonial cities.

As for the degrees of violence in the independent protests, most of the protesters favored non-violent chanting "manse," a slogan calling for independence to the Government-General, both in urban and rural areas. However, in the cities, damage to property had higher percentages compared to the rural areas, which showed property worth damaging concentrated in urban areas.

Participants were mostly composed of Christians, followers of Cheondogyo, a Korean religion, students and farmers across the nation. While Christians participated in similar percentages, regardless of rural or urban areas, students had a greater presence in the city rallies and members of Cheondoist and farmers in non-city areas.

Three major media of the March 1 Movement were banners, flyers, and slogans. While banners were favored evenly both in rural and urban rallies, city protesters preferred flyers and their non-city counterparts more heavily depended on chanting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University of Seoul.

slogans. It showed the letter-based network and verbal network co-existed in different spatial zones in colonial Korea.

As for the temporal development of rallies, in most cities, they surged in early March, slowed in mid-March, resurged later in the month, and subsided in April. On the other hand, in rural areas, demonstrations gradually gathered momentum all through March, reached a peak in early April and abated from mid-April. In overall, the nation-wide protests started in the cities and gradually spread out into neighboring non-city areas.

Whereas the time-slots of rallies were similar in cities or non-cities, in cities, more protests occurred in the afternoon, and in rural areas, they happened slightly darker hours than in the cities. That showed a difference in rhythm of life between cities and non-cities.

This analysis is a quantitative one based on the big data and can be used as a basis for further qualitative studies in the future.

Keywords: cities in 1919,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s March 1 Movement Database, March 1 Movement in urban areas,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March 1 Movement, students, personal struggle, letter-based network.

접수일: 2019.06.30. || 심사일: 2019.07.16. || 게재확정일: 2019.08.09.